

리아호나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18쪽**

홀런드 장로 부부, 상호부조회에 대해
논하다, 28쪽

택함 받은 자의 길을 택하십시오, 54쪽

친구를 찾은 로사, 66쪽



칠 십인 정원회의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은 참으로 훌륭하고,
심오하며,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기적적인 하늘의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통해 죄를 씻고,
치유하고, 영생을 부여할 힘을 [주는]
구주의 속죄가 실재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8쪽 참조.



쇠막대를 붙잡고, 루이스 파커

남아프리카 출신인 이 화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쇠막대를 굳게 붙잡고 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몰몬경에 대한 믿음을 비롯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연결된, 전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떠올릴 수 있다.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라.

또한 나는 이 쇠막대를 따라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험착하고 좁은 길을 보았나니 ……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밀고 나아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나아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아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니파이전서 8:19~20, 24)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을 받겠다, 엘 영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마태복음 9:20~22)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좋은 면을 보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신권의 관리 아래 신권의 모형에 따라**

특집 기사

- 14 **홍수로 흠어졌으나, 기도로 하나된 가족**
멜리사 메릴
코스타리카에 사는 토레스 가족이 신앙으로 비극에 맞선 이야기
- 18 **치유하는 이의 손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우리가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성신께 맡긴다면 구주께서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시고 증오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 24 **성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
교회 회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에 맞설 힘을 복음을 통해 얻습니다.
- 28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상호부조회에 관한 논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패트리샤 티 홀런드 자매
홀런드 장로 내외가 상호부조회가 하는 신성한 역할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0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 주십니다.**
- 12 **복음 고전: 속지 마십시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 17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조지스 에이 보넷
- 3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줄리 비 벡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가족 같은 와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캐롤라인 킹즐리

표지
앞: 위안을 주는 분이신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 IRI. 뒤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키



42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보살피는 일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이
처음이신가요? 이 아홉 가지 제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무지개 아래



- 46** 해답을 찾아서
- 48** 포스터: 슈퍼맨!
- 49** 떠나야 할까, 남아 있어야 할까?
로돌포 지아니니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두 분을 두고 떠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 50** 신앙의 수비수
리차드 엠 롬니
셀바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수비수로 활약한다.
- 52** 관용이란 무엇인가?
러셀 엠 넬슨 장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관용에
한계가 있을까요?
- 54** 택함 받은 자의 길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침례는 영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 58** 옷은 모습이 아름다운 소녀
미셸 글라우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었다.



- 59** 특별한 증인: 복음은 제가
행복해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60** 엘리리의 수술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수술을 앞둔 엘리리는 평안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 62** 축복을 세어 보세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이 권고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앤 차일드, 크리스티나 프랑코
- 66** 활동의 날에서 받은 응답
레베카 바논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활동의 날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 68** 우리들 이야기
- 69** 경전 포스터: 모세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2011년 3월호, 제48권, 제3호
리아호나 09683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패러, 라셀 엘 벨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록,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드슨

편집인: 폴 비 피아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호기 기꾸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켄 포터 고틀,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자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레이 오데커, 조슈아 데이 퍼거, 채드 이 페리스,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엠 루이, 돈 엘 설, 제니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신임 비서: 로열 듀서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우,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래지널드 데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허워드, 에이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스킵트 엠 루이, 지니 레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렌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33호, 제48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 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핀란드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rch 2011 Vol. 35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홀랜드 장로 내외는 개인, 가족, 와드, 지부가 상호부조회를 통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28쪽 참조) 이것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기쁘지 장로가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까지도 치유하는 구주의 권능에 관해 간증한다.(18쪽 참조) 구주의 사명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www.JesusChrist.lds.org를 방문한다.



청소년

www.youth.lds.org에서 복음에 관한 비디오와 간증, 기사, 그밖에 다른 것들을 찾아본다.

어린이



www.liahona.lds.org에서 여러 가지 어린이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기타 교회 자료는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가르치기, 32	봉사, 28	예수 그리스도, 17
가족, 28, 32, 49	사랑, 18, 52, 80	용서, 18
간증, 24	상호부조회, 7, 28	우정, 66, 80
감사, 62	선교 사업, 39, 40, 47, 48	인내, 54
개종, 38, 54	선지자, 10, 64, 69	정직, 40
경전, 10, 13, 73	성전, 46	지속적인 활동, 80
계시, 10	소망, 17	축복, 62
관용, 52	속죄, 17, 18	치유, 18
교리, 32	순종, 50	침례, 54, 68
교회 지도자, 9, 47	승영, 32	태도, 4, 58
기도, 14, 41, 66, 70	신권, 7, 60	희생, 394
단합, 24	신앙, 39, 41, 50, 60, 66	
모범, 40, 70, 72	역경, 14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좋은 면을 보십시오

어느 젊은 후기 성도 부부가 새로 이사할 집을 찾던 중 이웃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환경과 학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학교는 정말로 훌륭해요! 교장 선생님도 훌륭하고 좋은 분이세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시고 친절하고 다정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멋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곳을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형편없는 곳이에요. 교장은 자기밖에 모르고 교사들도 무능한 데다 무례하고 불친절하답니다. 당장이라도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을 정도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두 여성 모두 같은 교장, 같은 교사들, 그리고 같은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만 찾아낸다는 사실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접하는 사람들도 시작 단계부터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좋은 면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며 기꺼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면을 찾고자 한다면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한 점들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비판할 만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재주와 집요함은 끝이 없습니다. 적의와 고집에서 물러설 줄 모르는 듯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내며 흠을 잡고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품은 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들을 깎아내리거나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야고보서 3:16)

조지 큐 캐넌(1827~1901) 회장은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을 잘 아셨습니다. 영 회장님 재임 시절에 제일회장단 보좌로,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도 여러 해 동안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캐넌 회장은 일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말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속으로도 [브리검 영 회장님의] 행동이나 권고 혹은 가르침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흠을 잡은 적이 없다. 이제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일 브리검 형제님을 비판하거나 흠을 잡거나 판단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가 만약 그 일을 시작한다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나는 감히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서려 하지 않았다. 나는 종종 비판과 흠잡기에 탐닉하는 것에서 배도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보다 위대한 힘과 지혜, 경험이 있는 다른 분들은 나쁜 결과를 피하면서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겠지만, 나는 결코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9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며, 그것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자신의 간증은 강화되고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번 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면을 찾아본다면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간증할 수 있는 준비를 더욱 잘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잔을 보며 반이 찼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이 비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¹

캐년 회장님이 남긴 이 강력한 권고는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결하고 ……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야고보서 3:17, 18)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쁜 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와 공평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기를 매우 절실하게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우리는 오직 구하는 것밖에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

주

1. 조지 큐 캐년, 일지, 1878년 1월 17일; 철자는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

개에게 물리고 나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다

타라 스트링햄

2009년 여름, 나는 친구네 개에게 얼굴을 물렸는데 불행히도 입술이 찢어져서 꺾매야 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나는 풀이 죽었다. 머릿속은 온통 내가 겪은 시련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듯 했다. 내 입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고 공공 장소에는 절대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 상처 때문에 피아노, 배구, 교회, 수영, 학교에 관한 계획들은 이제 모두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도할 때나 신권 축복을 받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찾아 올 때면 항상 내 영은 고무되었고, 슬픈 시간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나는 곧 사람들이 내 상처를 보면

그저 잠시 연민을 느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하면서 나는 성품이 다듬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그 상처를 입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상처는 축복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내 영은 크게 강화되었다.

역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며, 그런 역경을 겪는 가운데 간증도 강화된다.

어린이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것을 찾아보세요

중은 면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 주변 곳곳에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축복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은 그날 본 좋은 것을 밤마다 세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좋은 것을 몇 개나 찾을 수 있나요?

오늘 밤 시간을 내어 오늘 여러분이 본 좋은 것을 가족 한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신권의 관리 아래 신권의 모형에 따라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일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해 조직된 주님의 조직”인 상호부조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마음 설레게 하는 시작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1842년 3월 17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의 관리 아래 신권의 모형에 따라”² 자매들을 조직했습니다.

“신권의 관리 아래에” 조직되었기에 자매들에게는 권세와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셨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이 없다면, 상호부조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권세와 영향력은 신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³ 십이사도 정원회의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원과 교사들이 행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직을 통해 전해지고, 부름을 준 신권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성별함으로써 그들에게 전달됩니다.”⁴

“신권의 모형에 따라” 조직되었기에 자매들은 성스러운 책임을 받았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회장이신 줄리 비 벡 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신권의 방식대로 활동합니다. 계시를 구하고, 계시를 받으며, 그 계시에 따라 행합니다. 또한 평의회를 열어 결정을 내리고 개개인을 돌볼 방법에 대해 고심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해 주는 신권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처럼 상호부조회는 구원과 봉사를 위해,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합니다.”⁵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내가 방문하는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의 성스러운 사업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구에서

고린도전서 11:11;
교리와 성약 25:3;
121:36~46

상호부조회의 역사에서

나부 성전을 짓는 동안 몇몇 자매들은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싶어했다. 이 새로운 단체의 규약은 엘리자 알 스노우가 작성했다. 스노우 자매가 그 규약을 보여 주자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자매님들이 바치신 것을 받아들이셨으며, 그 규약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자매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신권의 관리 아래 신권의 모형에 따라 여성들을 조직할 것입니다.”⁶ 얼마 후, 선지자는 새로 조직된 상호부조회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저는 이 열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넘깁니다. 이 조직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 시점부터 지식과 예지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⁷ 자매들은 좀 더 차원 높은 거룩한 경지에 오르고 조만간 성전에서 행해질 신권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주

1. 스펜서 더블류 킴볼, “상호부조회의 축복과 잠재력”,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2쪽.
2. Joseph Smith, quoted in Sarah Granger Kimball,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83, 51.
3. Eliza R. Snow, “Female Relief Society”, *Deseret News*, Apr. 22, 1868, 81.
4. 앨런 에이치 옥스, “상호부조회와 교회”,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36쪽.
5.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111쪽.
6. Joseph Smith, quoted in Kimball, “Auto-biography”, 51.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1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세계 교회 역사 탐방

네덜란드

50년 전 3월, 네덜란드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크인 홀린드 스테이크가 헤이그에 조직되었다. 교회에서도 첫 번째 비영어권 스테이크였다. 그로부터 백 년 전인 1861년 8월에는 네덜란드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 폴 아우구스투스 세틀러와 에이 비저스 반 데르 우드가 홀린드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로부터 100년 동안 1만 4천 명이 네덜란드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중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9천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있다.

2002년 9월 8일,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은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을 헌납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일부 지역에 있는 5개 스테이크와 1개 지방부 회원들이 이 성전에서 의식을 받는다.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

일정

본부 청녀 모임

12세부터 18세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청녀와 청녀들의 어머니와 청녀 지도자들은 3월 26일에 있을 본부 청녀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이 모임에서는 제일회장단의 일원과 본부 청녀 회장단이 말씀할 예정이다. 올해 모임 주제는 “우리는 ……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이다.

가능한 곳에서는 청녀들과 청녀들의 어머니와 청녀 지도자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이 방송을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방송 시간과 장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에게 문의하거나 www.broadcast.lds.org에서 확인한다.



네덜란드의 교회	
회원	8,909명
선교부	1개, 벨기에 지역도 관할
스테이크	3개
와드 및 지부	33개
성전	1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 음 달에는 연차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연사들 중 많은 분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구체적인 일화를 읽어 보고 어떤 분인지 이름을 맞춰 보세요.

- A.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배구를 개량한 운동인 밴볼을 즐겨 했습니다.
- B. 이분은 아버지와 이름이 같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할이라고 불립니다.
- C. 이분이 집사였을 때, 화가였던 아버지는 그를 성스러운 숲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스러운 숲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도분은 그 특별한 방문을 기억하고자 그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 D. 다섯 살 때, 이분의 가족은 미국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에 있는 낙농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분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토끼를 키우고 말을 타고 들판에서 뛰놀았습니다.
- E. 이분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통틀어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유일한 분입니다.
- F. 고등학교 때, 이분은 고학년 학생 회장으로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 G. 어릴 때부터 열정적인 운동 선수였던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식 축구, 농구, 육상, 야구에서 학교 대표 선수로 뛰었으며 주 대표 미식 축구단과 농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 H. 이분은 거의 매일 밤 어린 아들과 서양 장기를 뒀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3.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4.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5. 엘 톱 페리 장로
6. 러셀 엠 넬슨 장로
7.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8. 엠 러셀 벨라드 장로
9.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10.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11.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1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13. 쿠엔틴 엘 쿡 장로
1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5. 닐 엘 앤더슨 장로



장기를 세 판씩 두셨어요. 한 판은 제가 이기게 해 주시고, 다음 판은 절 봐 주지 않으신 다음, 마지막은 양보하기 판이었는데 그 판에서는 아버지나 저 둘 중 아무나 이길 수 있었어요.”

- I. 20대 초반에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 J. 이분은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굴잡이 어선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다른 어부들은 이분이 술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배 밖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이 사도분을 보내 그 사람을 구출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이분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 K. 대학교 때 이분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이셨습니다.
- L.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이분은 리스 대학 총장이었으며 리스 대학이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로 전환되도록 도왔습니다.
- M. 이분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회장님이 교회 회장이 되기 직전에 그분의 심장 절개술을 집도했습니다.
- N.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이분의 선교부 회장님은 스코트 장로님이셨습니다.
- O. 이분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행적을 더 알고 싶다면 www.newsroom.lds.org를 참조한다.

정답: A. 5; B. 2; C. 10; D. 15; E. 3; F. 13; G. 11; H. 1; I. 4; J. 9; K. 7; L. 12; M. 6; N. 14; O. 8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 주십니다

선 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며 그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불러 지상에서 그분의 대변인이 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우리 삶을 축복하기 위해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따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상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 회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상에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두 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도 선지자이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는 사도 열두 분도 선지자라 불립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현이나 꿈 또는 천사의 방문으로 계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은 성신이 고요하게 영적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로 우리는 힘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었으며, 그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지상에 살아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9~110쪽.

현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영감 받은 가르침은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1. 교리와 성약은 현대의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를 모아 둔 책이다. 이 책은 www.scriptures.lds.org 에서 볼 수 있다.



2. 교회 회장이나 그의 보좌 중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매달 리아호나 잡지에 실린다.(LDS.org에서 몇몇 언어로 볼 수 있다.)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과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은 가족과 구주에 관한 진리에 대해 선지자들이 선언한 내용이다. 두 자료 모두 LDS.org에 게시되어 있다.



4.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구성원 전원이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읽거나 시청하려면 www.conference.lds.org 를 방문한다.



1. 금식하고, 깊이 생각하며,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한다.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2. 경전을 읽는다.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지침을 주시는 수단이다. 성신은 우리가 읽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3. 매주 일요일 교회에 참석하고 가능하면 성전에 간다.



4.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기에 합당해진다. ■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2~3)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교통하는 채널”,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83쪽; 복음 원리(2009년), “하나님의 선지자”, 39~43쪽; 신앙에 충실함(2004년), “계시”, 26~30쪽.

속지 마십시오



제10대 교회 회장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1876년 7월 19일에 태어났다. 그는 1910년 4월 7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970년 1월 23일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1953년에 전한 이 말씀에서 스미스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세상이 주장하는 거짓 이론에 속지 않는 방법을 가르쳤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 혹은 그분을 급속도로 저버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파에 몸담은 기독교 성직자들이 인간의 철학을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주님의 영이 부족해서 경전이나 경전에 담긴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세상에 삽니다.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신성한 계시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짓 이론과 융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철학의 영향을 두려워하고 거짓 철학에 지배를 받은 그들은 교리를 수정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이러한 이론과 사상에 자신들의 토대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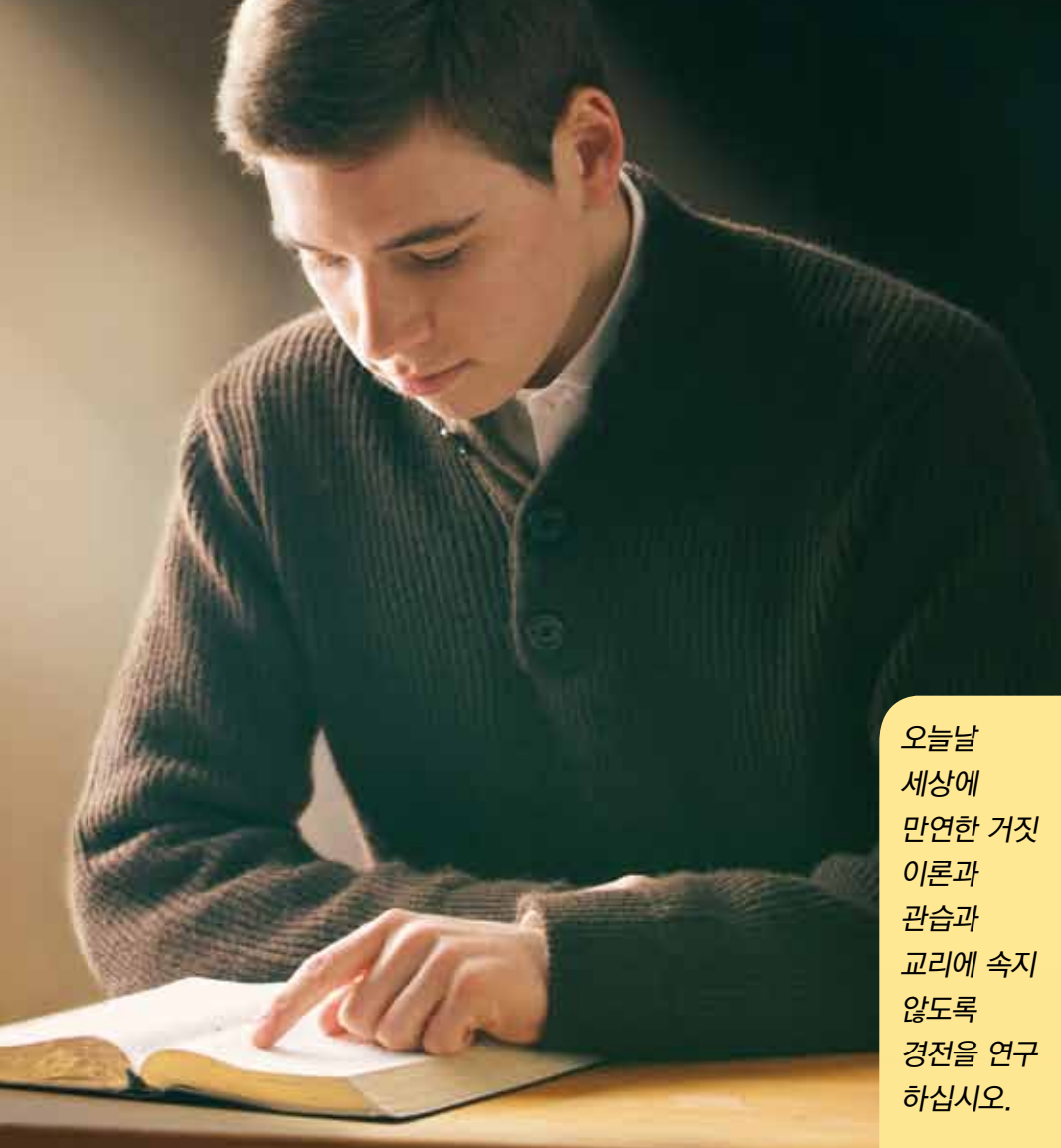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날이 오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참 빛인 것과,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번성할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88:49~50)

이것은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중에 88편을 읽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한 편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세상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표준을 바꾸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경전과 계시된 복음이 전하는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제로 삼으십시오. 이보다 더 나은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계시 전체를 읽으십시오. 아니, 책 전체를 읽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직접 주신 이 책의 서문인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때가 찬 경륜의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거짓
이론과
관습과
교리에 속지
않도록
경전을 연구
하십시오.

인간의 이론 때문에 잘못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거짓임을 말해 줄 것이며, 여러분은 분별의 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소프트볼, 배구, 농구, 도보 경주, 춤, 기타 오락이 주님의 영에 위배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의 영과 신앙으로 행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도록 가르칩시다. ■

"Entangle Not Yourself in Sin", Improvement Era, 1953년 9월호, 646~647, 671~672, 674, 676~678쪽에서 발췌; 대문자 및 구두점을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즉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 이같이 이르노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교리와 성약 59:5)

그러므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은 온 영혼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된 이러한 진리를 속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여러분과,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이 점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매우 훌륭한 주제이긴 하지만 (당시 상호 향상 모임 주제였던) 이 한 절[교리와 성약 88편 86절]을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거짓 이론과 관습과 교리에 속지 않도록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주님의 영의 인도, 즉 모든 교회 회원이 받은 권리인 성신을 동반한다면,

홍수로 흠어졌으나 기도로 하나된 가족

침실에 갇히고, 가구가 앞을 가로막으며, 나뭇가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토레스 가족은 자신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빅 토 마누엘 토레스 키로스와 그의 아내 야멜레스 몽헤 우레나와 그들의 가족에게 2005년 9월 25일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요일로 시작되었다. 교회에서 돌아온 그들은 독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코스타리카 산악 지역에 위치한 집에서 비 내리는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녁 주말 내내 비가 내렸지만 그 계절이면 그 지역은 늘 그랬다. 오후 다섯 시쯤 토레스 형제는 집 근처에 흐르는 강이 여느 때보다 많이 불어나 집 가까이로 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가족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대비책으로, 열한 살 된 아들 에릭과 함께 물이 안으로 스미지 못하도록 문틈마다 담요를 놓기 시작했다.

얼마 뒤, 강이 많이 불어나 집 둘레로 1.5 미터 높이까지 물이 차 올랐다. 물은 순식간에 창을 깨고 밀려들었다.(가족이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물이 밀려든 이유는 산사태 때문이었다.)

토레스 형제는 뒤뜰로 뛰어가라며 가족들에게 외쳤다. 뒤뜰에는 나무 몇 그루가 있었고, 지대도 높았다. 십대인 세 딸, 소피아, 코리나, 모니카는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토레스 자매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엘리자베스는 그 주말 동안 가족들이 보살피던 어린 아이였다. 두 사람은 곧 침대로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침대는 물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혹은 모두 괜찮은지도 알 수 없었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토레스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어서 두 사람은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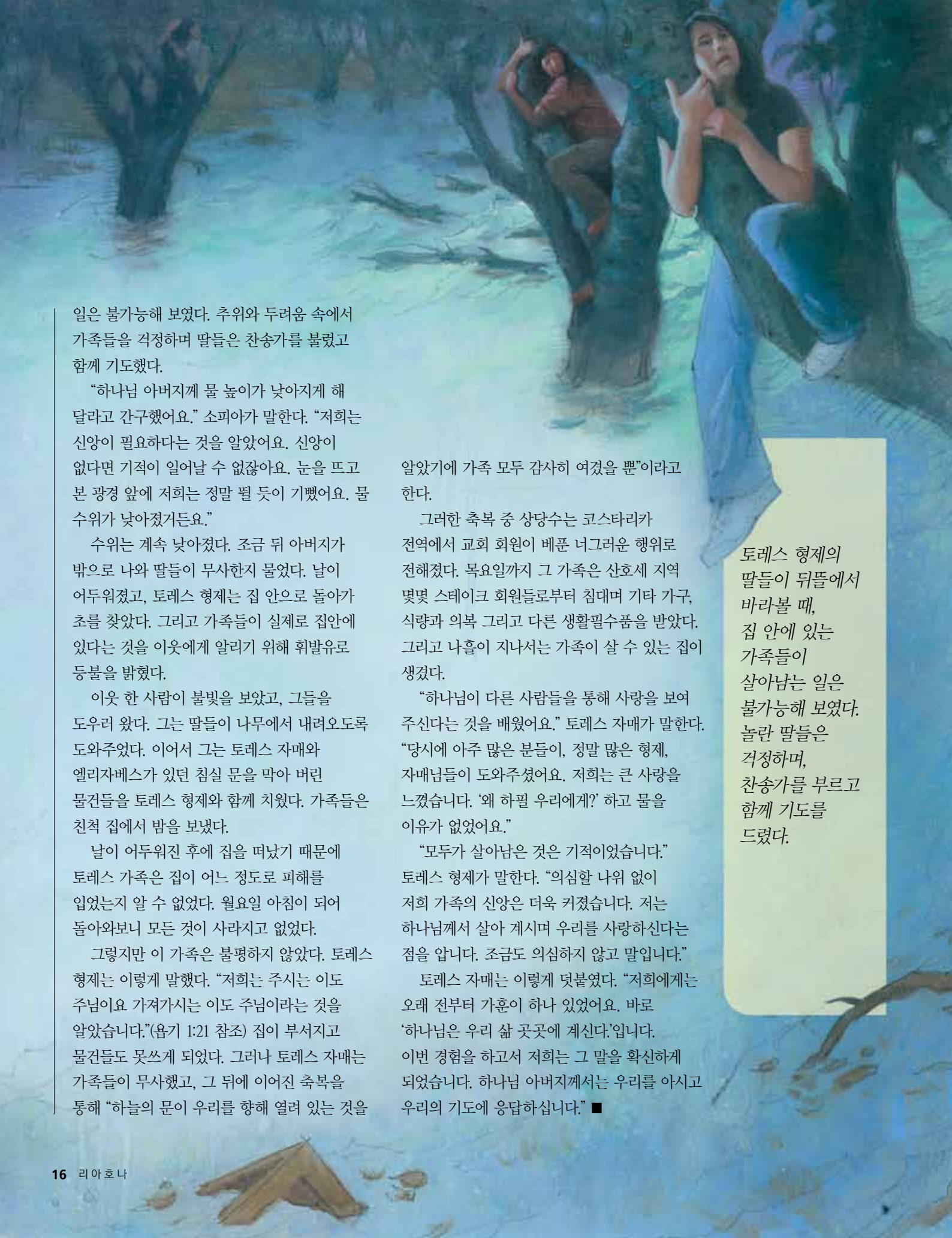
딸들을 쫓아 밖으로 나간 토레스 형제는 비로소 에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물살을 헤치며 집안으로 돌아갔다. 토레스 형제는 물에 떠내려와 닫힌 문 앞에 쌓인 나뭇가지들, 허물어진 벽, 가구, 쓰레기 등이 쌓인 잡석 더미 위에서 서 있는

에릭을 발견했다. 에릭과 토레스 형제는 함께 부엌으로 움직였으며, 거기서 토레스 형제는 에릭을 높고 안전한 곳에 올려주었다. 그때 토레스 형제는 물살에 밀려온 나일론 끈이 다리를 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토레스 형제는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냉장고며 가구 몇 가지를 밀어냈다. 행여라도 문이 막혀서 자신과 아들이 갇히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부엌 안에서 에릭과 토레스 형제는 뒤뜰에 있는 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토레스 자매와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토레스 형제는 에릭에게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자고 했다.

그 사이, 바깥에 있는 구아바 나무(껍질은 황색에 과육은 분홍색인 열대 아메리카산 과일-옴긴이) 위에 있던 딸들 또한 기도를 드렸다. 소피아와 코리나, 모니카는 집안으로 물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안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남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을 걱정하며 딸들은 찬송가를 불렀고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 높이가 낮아지게 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소피아가 말한다. “저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이 없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눈을 뜨고 본 광경 앞에 저희는 정말 떨 듯이 기뻐요. 물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수위는 계속 낮아졌다. 조금 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딸들이 무사한지 물었다. 날이 어두워졌고, 토레스 형제는 집 안으로 돌아가 초를 찾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실제로 집안에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 휘발유로 등불을 밝혔다.

이웃 한 사람이 불빛을 보았고, 그들을 도우러 왔다. 그는 딸들이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도와주었다. 이어서 그는 토레스 자매와 엘리자베스가 있던 침실 문을 막아 버린 물건들을 토레스 형제와 함께 치웠다. 가족들은 친척 집에서 밤을 보냈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 집을 떠났기 때문에 토레스 가족은 집이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 돌아와보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지만 이 가족은 불평하지 않았다. 토레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주시는 이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욥기 1:21 참조) 집이 부서지고 물건들도 못쓰게 되었다. 그러나 토레스 자매는 가족들이 무사했고, 그 뒤에 이어진 축복을 통해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을

알았기에 가족 모두 감사히 여겼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한 축복 중 상당수는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교회 회원이 베푼 너그러운 행위로 전해졌다. 목요일까지 그 가족은 산호세 지역 몇몇 스테이크 회원들로부터 침대며 기타 가구, 식량과 의복 그리고 다른 생활필수품을 받았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는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토레스 자매가 말한다. “당시에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하고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토레스 형제가 말한다. “의심할 나위 없이 저희 가족의 신앙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압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입니다.”

토레스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에게는 오래 전부터 가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 계신다.’입니다. 이번 경험을 하고서 저희는 그 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

토레스 형제의 딸들이 뒤뜰에서 바라볼 때,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남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놀란 딸들은 걱정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조지스 에이 보넷

19 90년대에 우리 가족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직장 때문에 아프리카로 갔다. 나는 부룬디, 르완다, 소말리아에서 구호 사업을 도우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때는 기근과 만행과 전쟁과 고통이 난무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민 수용소에서 지냈다. 고아 수백 명이 자기 손으로 지은 영성한 피난처에서 살았다. 콜레라, 장티푸스, 영양실조가 끊이지 않았다. 쓰레기와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는 절망감을 더해 주었다.

나는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 교회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일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 그토록 광범위한 참상과 비극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무력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서 종종 나는 눈물 섞인 밤을 보냈다.

이처럼 좌절감으로 몸부림치던 시기에 익숙한 구절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이사야의 말이 인용된 이 구절에는 구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옥의 열림을 선포하시려고 ……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리와 성약 138:42)라고 나온다.

나는 절망적인 방법으로 “마음이 상한” 많은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 집, 평화로운 생활 방식을 잃었다. 그럼에도 그중 많은 사람은 자신이 “고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임시 가옥을 방문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아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때면 우리는 종종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주님께 간청하면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듯했다.

물론, 속죄의 영향력을 이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영향력은 내세에서도 받을 수 있다. 나는 구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구속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이생에서 겪는 고통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에 관계 없이 속죄를 통해 사라지고 치유될 것이다.

살육과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았던 몰몬과 모로나이는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공의를 지니신,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해 기록했다.(예를 들어, 모로나이서 7:41~42 참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의 신앙은 강화되었다.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때 궁극적인 구속 권능은 구주의 은혜뿐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그분의 영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세상 여건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절망을 야기한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구속주께서 고치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아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에, 나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모든 노력이 항상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며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

치유

구주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속죄에 눈을 돌린다면 구주께서는 상처 받은 마음과 오해, 증오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19 78년 8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신권 지도자 모임이 끝난 후, 북도에 서 있는데 예수 살 정도 되신 한 자매님께서 제 귀에 대고 일본어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일본인이 싫어요.”

충격과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일본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니 유감이군요.” 그 자매님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느끼셨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매님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요?

스테이크 대회 저녁 모임에서 저는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와 그분의 위대한 희생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회원들에게 니파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주님의 영이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간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니파이는 아버지 리하이가 본



요시히코 기꾸찌 장르
칠십인



하는 이의 손길

생명나무를 보았고, 아기 예수님도 보았습니다.(니파이전서 11:1~20) 그때 한 천사가 니파이에게 아버지 리하이가 시현으로 본 나무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니파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니이다” 천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하도다.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니파이전서 11:22~23).

하나님의 사랑을 지닐 때 우리는 편견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의지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영혼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주여,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당신께서 보이신 길을 걷게 하소서
잠시 멈추어 서로 돕고 끌어올리도록
더 큰 힘을 제게 주소서*

내가 누구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나이까?
미리 계획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한국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중에게 제가 아홉 명이나 되는 한국인 사촌들과



함께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기도 했고 제 형제자매들과 저는 종종 그분들의 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노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희 친척 중 한 분은 훌륭한 한국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을 일본에서 키우셨는데, 바로 제가 자란 마을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말씀 중간에 저는 이호남 회장님과 함께 한국 민요를 부를 테니 피아노 반주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호남 회장님은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스테이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소년 시절에 불러 본 것이 마지막이지만 한국 국가를 불러보겠다며 이 회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한국인 친척에게서 그 노래를 배운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가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회중에게 저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자고 부탁했습니다. 회중은 모두 일어나 그들의 아름다운 국가를 불렀습니다. 많은 분이 눈물을 흘렸고 저도 노래를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며, 제가 한국인 사촌을 사랑하듯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니파이전서



진정한 제자가 되다

“인종 비방과 모욕적인 말이 우리 사이에서 때때로 들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 관해 험뜯는 말을 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

우리는 주님의 교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분께도 의무가 있습니다.”

고든 비 황클리(1910~2008) 회장,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8, 60쪽.

11:22, 25 참조) 우리는 모두 그 영원한 사랑을 느꼈으며 거의 모든 회중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사랑합니다.”

저녁 모임이 끝난 후, 스테이크 회원들은 저와 인사하기 위해 긴 줄로 늘어섰습니다. 그 줄 끝에는 예수 살이신 그 한국인 자매님도 서 계셨는데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제게 오셔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구주의 치유하는 날개가 우리 모두를 감쌌고 평화의 영이 회중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분들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나이까
나조차 불완전하거늘
은밀한 마음은 가려져 있으니
눈으로는 슬픔을 볼 수 없어라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977년, 저는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수많은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유타 주 테일러스빌에서 열렸던 신권 지도자 모임이 끝난 후에 몸집이 큰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자신의 형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일본 사람을 증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자 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우시면서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제가 제 개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미국 사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전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미국 조지아 주에서 있었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께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증오를 품어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장로님의 부친께서도 전쟁 중에 돌아가셨지만 그 후 장로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교회 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도 장로님 나라 사람들을 증오해 왔어요. 하지만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복음 덕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아담-온다이-아만을 방문한 후에 열린 한 노년의 모임에서 그 지역 내 봉사 선교사 책임자로 계신 분이 제게 개종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노년의 모임에 참석한 부부들께 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준비시키고 그 자녀들을 제 집으로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악수를 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 책임자 분께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임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요점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시절에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복무 중 저는 많은 일본인 군인을 죽였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충성을 바쳐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수년 동안 동양인, 특히 일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각할 정도로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전문 상담자를 찾아가 제 느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꾸찌 장로님과 자매님과 두 아드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기꾸찌 장로님의 간증과 개종 이야기, 주님과 복음,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미국 사람들과 미군들을 한때 증오하셨지만 복음을 알게 되어 주님의 치유하는 힘을 통해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끝났단다. 이제 괜찮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분은 손을 뻗어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제 짐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와서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아내와 제 아내도 다가왔고, 우리 모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말씀과 속죄에 눈을 돌린다면 그분께서 상처 받은 마음과 오해, 증오심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신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민수기 21:8~9; 니파이전서 17:41; 앨마서 33:19~21 참조)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야곱서 2:8)며,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그분께서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신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야곱서 2:8)며,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보낸 테레사 수녀님은 이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서로를 판단한다면 구주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4쪽.

내 형제를 지키는 이가 되겠나이다
치유하는 이의 손길을 배우겠나이다
상처 받은 이들과 지친 자들에게
다정함을 보이겠나이다

10분을 드리죠

저는 일본 북부 지역 홋카이도 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섯 살 때, 아버지는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미국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는 저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해서 학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마을에는 일할 곳이 없었지만 집에서 아홉 시간 떨어진 무로란 시에서 두부 만드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성장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로란 시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정오까지 두부를 만들고 저녁 6시까지 여려 가게에 두부를 배달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야간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10시 30분경에 집에 돌아와 밤 11시가 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을 빼는 이런 일정 탓에 저는 얼마 못 가서 기력을 모두 소진했고 앓게 되었습니다.

두부 가게 주인의 집에서 지내던 저는 일을 그만두고 외삼촌께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쳐야 하니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약을 써 봤지만 저는 계속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졌고 이리다 죽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다소 주제넘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낫는다면, 당신께 갚아드리겠습니다.”

외삼촌 댁에 머물던 어느 이른 저녁, 외국인 두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중 선임 동반자였던 로 장로는 미국 아이다호 주 세인트앤서니에서 온 농부였습니다. 이제 갓 선교 사업에 나온 그의 동반자 포터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이었습니다. 춥고 비까지 내렸으며 밤이 가까워졌기에 선교사들은 곧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이 집 저 집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 젊은이들은 겸손했으며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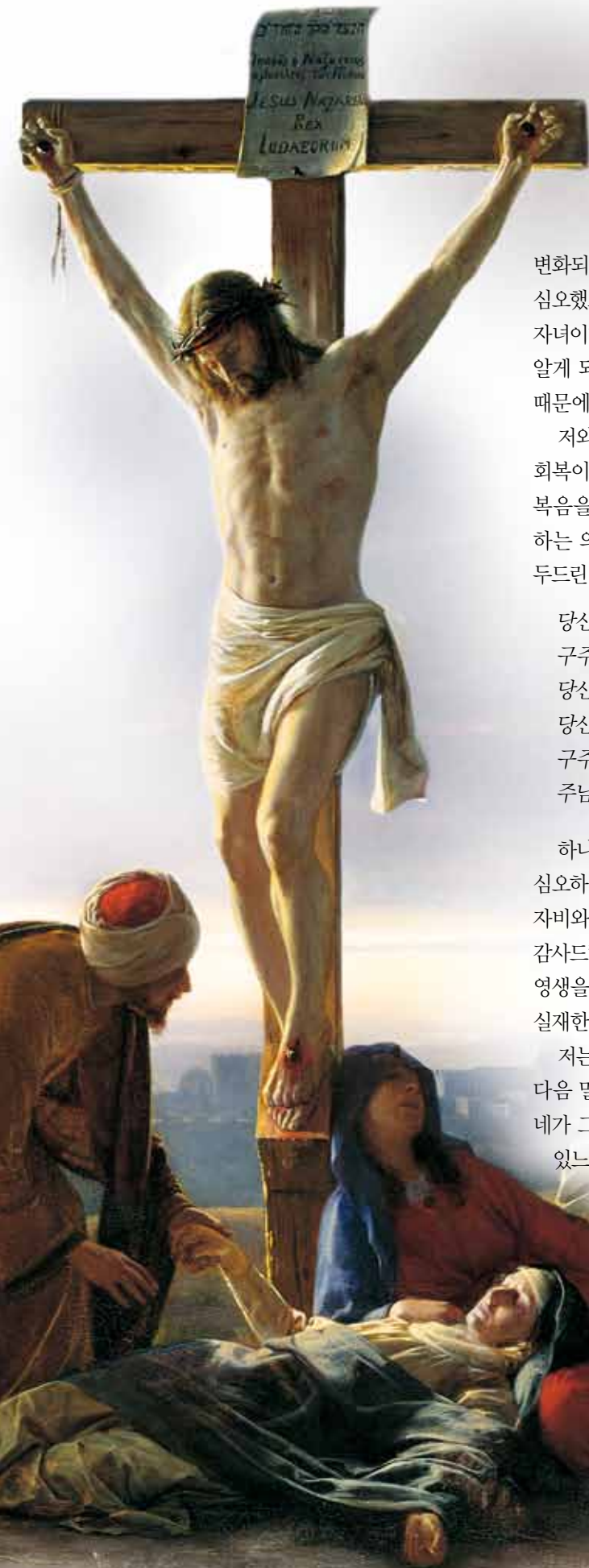
아이다호에서 온 선교사는 단념하지 않고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제 나이는 알아서 무엇 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또래인 한 소년이 형제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분을 드리죠.”

그 10분 동안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심오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 면전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제가 아팠었기
때문에 매일 저를 방문했습니다.

저와 토론을 하는 동안 선교사들은
회복이라는 아름다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희망을 얻었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이 제 집 문을
두드린 지 몇 주 후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듯이
구주여, 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제 힘과 제 등불을 찾고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구주여, 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은 참으로 훌륭하고,
심오하며,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기적적인 하늘의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통해 죄를 씻고, 치유하고,
영생을 부여할 힘을 [주는]”² 구주의 속죄가
실재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몰몬경에서 엘마가 지에즈롬에게 한
다음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니라.”(앨마서 15:8) ■

주

1. "Lord, I would Follow Thee", 영어 찬송가, 220장.
2. 엘 톰 페리 장로,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0쪽.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은 참으로
훌륭하고, 심오하며,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 기적적인 하늘의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세계 각국에 살며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부름을 수행하면서 각종 도전들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구주와 그분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 사랑과 공통된 목적 안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 공동체로 단합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작은 지부에 다니는 회원 열세 명을 만나든 멕시코에 있는 와드에 참석하는 회원들 2백 명을 만나든 여러분은 훨씬 더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공통된 신앙으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에베소서 2:19)

이곳에 실린 기사들을 읽고(혹은 매달 교회 잡지를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이웃들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에게 닥친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바랍니다.





비이가 파아토이아, 사모아
60세
시장
감독단 제1보좌



루시아 레오나르도, 과테말라
23세
학생
스테인크 청년 회장단 제2보좌

2009년 9월 사모아를 강타한 쓰나미로 저는 손자를 잃었습니다. 조카도 잃었으며, 집과 자동차 두 대를 포함하여 제가 가진 거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거의 온 마을이 언덕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살아남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를 통해 새 집과 음식, 그리고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살아 남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니신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축복 받았습니니다.

제가 처한 문제는 제 또래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무슨 공부를 해야 하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비회원 친구들이 표준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때로 의기소침해지거나 슬프거나 신경이 과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통해 저는 인생 다방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복음 덕분에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감사드리며, 또한 행복을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강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발레리나 엠, 미국 유타 주
10세

언니나 누나 역할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면서, 엄마와 이모들의 관계를 보면서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법을 배웁니다. 엄마는 제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칸게드, 케냐
27세
자유기고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해리스 롬바마, 잠비아
46세
비정부 자선 단체 임원
지방부 회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용서는 더뎠고 누구든 제게 부당한 취급을 한 사람에게는 나쁜 감정을 품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술에 취한 남편들과 매맞는 여성들뿐이었기에 결혼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 삶은 변화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랑과 상호존중과 이해에 대해 배우는 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복음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으로 여기던 사람들과도 화해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저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귀환 선교사를 만났고 곧 성전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제가 올바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모습에서 저는 소속감을 느낍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머물던 어둠과 후회에 미련을 두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남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근이 먹고 살만큼만 돈을 버는 문제는 항상 제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버는 것에 비해 생활비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저는 집세를 내야 한다는 것과, 음식이 다 떨어져 간다는 것과, 아이들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것 등에 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알았기에 이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맺은 성약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도 생활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일조의 법을 지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굶주리지 않게 축복해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생에서 맞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인생에서 처하는 위험 앞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종하고 충실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맞으리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떤 시련에 처하든 늘 복음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목적과 방향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르바라 바크, 러시아
25세
학생
세미나리 교사



크호운 모니락, 캄보디아
18세
청남 회장단 제1보좌, 세미나리 교사

저는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 표준이 매우 낮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표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표준이 높은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훌륭한 도덕적 표준을 지닌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 알아보는 동안 저는 이미 여러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고 그러한 계명에 따라 살고 있었기에 그 간증도 빨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겪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 홍콩 성전에서 인봉을 받고 돌아온 후, 누나가 전임 선교사로 막 떠나려 하는 시점에 형과 또 다른 누나가 직장을 잃었고 아버지의 월급이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집에 살던 저희 열한 가족에게 그 일들은 시련이었습니다만 저희는 성전에서 맺은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 시기에 성신은 제게 한 경전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야곱서 2:18) 그 구절은 제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축복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저도 면접을 몇 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22 참조)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상호부조회에 관한 토론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부인인 패트리샤 티 홀런드 자매가 상호부조회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나눈다.

“상호부조회가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중요성에 관해 교회 잡지 직원과 나눈 대담에서 패트리샤 티 홀런드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 아주 많이 배운 곳입니다.”

홀런드 자매와 남편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모두 그들의 삶에 복음의 힘이 함께 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상호부조회를 통해 가정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평했다. “상호부조회는 늘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홀런드 장로가 말한다. “상호부조회는 언제나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호부조회는 복음입니다. 훌륭한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복음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상호부조회가 회원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 전체에게 손을 뻗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 말입니다.”

홀런드 장로와 자매는 상호부조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협력할 때 가족과 와드 또는 지부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앙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상호부조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홀런드 자매: 지금 세상 모든 곳에서는 도전들이 밀려옵니다. 그렇기에 상호부조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교회 여성이 더욱 의로운 삶을 살며, 영과 가까이 생활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홀런드 장로: 상호부조회는 특별히 여성의 목소리로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돕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복음 교리와 가치를 여성들 삶 속에 전달하는 매개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음 원리는 성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자애, 동정심, 아울러 힘과 지도력, 결단력 등은 모두 복음에서 가르치는 덕목입니다.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능력껏 그 덕목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따라 여행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인 개인입니다. 우리는 각자 바위처럼 아주 단단해야 합니다. 조직의 힘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며, 가정의 힘 역시 그러한 기초에서 비롯됩니다.

홀랜드 자매: 저는 우리가 후기 성도로서 성전이나 와드, 지부, 결혼생활이나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든 것이 신권과 상호부조회 조직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성과 가족들이 받는 도전들에 비추어볼 때, 장차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상호부조회만큼 도움이 되는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패트리샤 티 홀랜드

홀랜드 장로: 여성들은 매주 상호부조회에서 집으로 돌아가 생활 속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남성과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내와 딸들은 제 아들들과 제가 배워서 알려 준 신권 지침으로 오랜 세월 동안 축복을 받았습니다.

홀랜드 자매: 여성과 가족들이 받는 도전들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상호부조회만큼 도움이 되는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여성들을 어린이 복지 “대장”이나 지도자 부름에 불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무너지는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과업이 수행되도록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조직 덕분에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족은 어떻게 강화되었습니까?

홀랜드 자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상호부조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 상호부조회에서 봉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분들께 배웠고, 그분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십 년 동안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신 저희 증조할머니,

엘리자베스 쉬무츠 발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음식, 옷가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자매들과 나누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분이 보여 주신 모범과 상호부조회에서 하신 봉사는 지금도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홀랜드 장로: 상호부조회에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인생을 형성하는 시기에 저도



상호부조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십대 시절 대부분 동안 어머니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 보기에도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축복은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또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내를 통해서도 상호부조회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사람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인 헌신으로 직접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패트리샤 테리와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어떤 여성인지 잘 알았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모습을 꼭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앞으로 나아갔고 왕국의 의무를 짊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실제 몸집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치와 미덕은 저희 결혼 생활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가 저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와드나 지부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원문: 사진 촬영: 헬렌 시 맨디슨 © FR: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크레이그 데이먼드

홀런드 자매: 상호부조회는 신권 조직 형태를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목적을 향해 신권 조직과 상호부조회가 아름답게 나란히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며, 남성과 여성 서로가 의로워지도록 복돋아준다는 목적을 공고히 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축복이 필요하며, 여성은 남성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성전에서 강하게 배웁니다. 신권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협력할수록 와드나 지부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살았던 곳곳에서 와드 평의회 모임이

회장은 가정 방문 교사를 통해 개별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필요 사항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와드 평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가 21세기에 존재하는 여러 도전에 대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홀런드 장로: 현재 지구 전체를 휩쓴 경제 불안은 전 세계의 재정적 상황을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상호부조회는 언제나 검소한 생활과



“상호부조회가 오랫동안 사용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여러 도전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온 인류 가족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뭉칠 수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발휘하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구성원입니까! 우리는 경전에서 배웁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 하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12:21)

홀런드 장로: 오늘날 대두된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와드 혹은 지부 지도자들은 협력해야 합니다. 감독은 와드를 이끄는 신권 열쇠를 지닌 분입니다. 와드 혹은 지부 평의회는 긴요하게 업무를 조정하는 곳입니다. 평의회가 잘 움직일수록 교회가 잘 움직입니다. 이 점은 모든 와드나 지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와드 지도자들과 함께 와드에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시간으로서 와드 평의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 복지가 필요한 회원들이 있지는 않은가? 청남은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혼을 앞둔 남녀 또는 부부가 성전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와드 평의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 가족의 어머니는 그 자녀와 남편의 필요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호부조회

구제라는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21세기에 과일 병조림(음식물 또는 음료를 병속에 담아 밀봉 후 가열살균하여 저장성을 높인 식품)을 만들고 누비 이불을 만드는 것을 보고 세상은 이를 구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일 병조림과 따뜻한 누비 이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선물입니다. 검소한 생활은 결코 시대에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19세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1세기로 곧장 나아가는 이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상호부조회가 오랫동안 사용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여러 도전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온 인류 가족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기치 아래 뭉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소리입니다.(고린도전서 14:8~10 참조)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를 상호부조회 모토로 삼은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고린도전서 13:8) 이것은 후기 성도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분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람이 분다면 바람은 불 것이고, 폭풍우가 온다면 폭풍우는 올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이든 답은 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위처럼 단단한 그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런드 자매: 저는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또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봉사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이든 언젠가는 봉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누구나 실생활로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영원한 원리입니다.

홀런드 장로: 상호부조회 봉사가 교회 회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보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의 위대한 자매애, 특히 자비로운 봉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종교가 다른 이웃 가족과 함께하고, 나아가 시내 학교 원조 활동에 동참하거나 혹은 동네와 지역 사회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가꾸는 일에 협력합니다.

미래에 상호부조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홀런드 자매: 틀림없이 상호부조회는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우리 자매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데 열쇠와 같습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와

와드 평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

“와드 평의회에는 감독단과 와드 서기, 와드 집행 서기, 대제사 그립 지도자,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선교 책임자, 상호부조회 회장, 청년 회장, 청년 회장, 초등학교 회장, 주일 학교 회장이 포함된다.

“평의회 구성원은 ……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권장받는다. ……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의견이 정식 참여자의 의견으로서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 여성의 관점은 남성의 관점과 달라서 ……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는 사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지침서2: 교회 관리 [2010], 4.4; 4.6.1)

부활, 모범으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성약을 맺고 서로 사랑하기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어둠을 뚫는 밝은 빛입니다.

홀런드 장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복음에 관해 헌신하고 복음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어머니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봉사할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우리의 낡은 차에 시동이 걸리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현 외투 차림으로 눈발을 헤치고 나가 뉴잉글랜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주 어렸지만 아이들은 그러한 장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과 충실함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딸은 진실하게 봉사하는 후기 성도 여성이 되었고, 아들들은 며느리들의 헌신과 봉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머니의 모범을 보면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일상 생활에서 담당하는 중요하고 고귀한 역할을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후기 성도의 삶이라는 “열매”에서 목격하는 모범, 즉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애써 일할 때 거두는 결실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빛입니다. 복음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상호부조회의 장래도 밝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나팔소리는 참되게 울릴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들고 헌신적인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선두에는 교회의 의로운 신권 남성과 상호부조회 여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

이 대답은 교회 잡지의 라렌 곤트와 조슈아 퍼키가 진행했다.

줄리 비 벅
상호부조회 회장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전 세계 청년 독신 성인들을 만날 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제일회장단은 여러분을 그토록 염려하고 그토록 많은 자원을 제공할까요?” 제가들은 대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니까요.” “굳건하게 남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수업 시간에 간증이 강화되니까요.” “다른 훌륭한 후기 성도 젊은이들을 만나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미래의 희망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대답은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더 나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요.” 젊은이들은 주로 자신에 관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나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부모와 교사,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일은 중요합니다.(모세서 1:39 참조) 그들은 가족에 관한 신학 체계가 창조와 타락과 속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족을 위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무엇에 대항하여 싸우는지를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충만함이 성전 의식과 성약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 신학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창조, 타락, 속죄에 근거한 가족 신학이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어 가족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두 부분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인봉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타락으로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필멸의 삶을 경험하기로 선택한 아담과 이브는 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타락으로 그들은 아들과 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를 통해 가족은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습니다. 속죄를 통해 가족은 영원히 성장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라 불리기도 하는 행복의 계획은 가족을 위해 마련된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 신학의 주요 기둥이 가족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생을 축복 받을 자격을 갖춘다는 말은 곧 영원한 가족이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이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교리와 성약 2편 1~3절에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가족에 관한 교리를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교리를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 타락, 속죄에
근거한
가족 신학이
있습니다



원화: 우주 그림 일부 확대, 시드니 강: 예전 동상을 떠나며 그림 일부 확대, 조원 브러시: 내 아내로 미사들과 아버지의 영내로 도구를 권한다이다 그림 일부 확대, 해리 앤더슨: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INC. 제공, 사진: 상화: 헬스인 시골트 및 크레그 다이먼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이 구절은 성전 축복, 즉 성전 의식과 성약에 관해 말하며, 그것이 없다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창조주의 계획에서 가족이 중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¹ 가족 없이는 계획도 없고, 필멸의 삶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것들

가족 신학을 이해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무엇이 가족을 위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가치가 증발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율이 감소하고 결혼 연령도 높아지며, 이혼율은 증가합니다. 혼외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출산율을 목격합니다. 불평등한 남녀 관계와 여전히 가족 관계 내에서 학대가 자행되는 문화권을 봅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가족보다 중요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제도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더욱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일은 점점 더 소홀히 합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가족을 이루는 일이 신앙에 기초한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 일은 마치 쇼핑처럼 한 가지 선택 과정일 뿐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자신에게 도덕적인 힘이 있다는 점을 불신합니다. 유혹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약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은 영원한

이혼은 가족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사고 기술이 불충분하고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80킬로미터 밖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주 숙달되어 있으면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서로 어울리는 일을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언급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반가족적인 정책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설물이 만연합니다. 외설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된 고객은 청년들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들은 무능력하고 꽉 막힌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반가족적인 미디어 메시지는 도처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한 말을 읽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전파하여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그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으니, 참으로 많은 여자와 또한

남자들을 이끌어 내어, 음행을 범하게 하였으며”(엡마서 30:18) 사탄은 자신은 절대 육신을 얻지 못하고 가족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사탄은 미래 세대의 육신을 창조할 청년들을 겨냥합니다.

코리호어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반가족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듣는 모든 반가족적인 교리나 원리 또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이 모사이야서 26장에 묘사된 백성처럼 조상의 의로운 전통을 거부하고, 구원의 계획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십시오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칠 때,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가족 교리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 가족 선언문에 나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가족 선언문이 이 교회가 항상 유지해 온 “표준과 교리와 관습에 대한 선언이며 재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영원히

청소년 지도자와 교사가 그러하듯이 부모들도 경전과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가족 교리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가족은 필멸에서 발생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족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조직되어 존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상의 가족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하고 인봉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가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The Family: A Proclamation to the World”, Dawn Hall Anderson, ed., *Clothed with Charity: Talks from the 1996 Women’s Conference*(1997), 134.

인봉되고, 후손을 낳는 ……가족 정부라는 이 반차는 ……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³

자라나는 세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28; 모세서 2:28)라는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일은 신앙에 기초한 일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⁴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영원한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계획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서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그러한 영원한 역할과 책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교사들에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필수적이며 유일무이한 여러분의 의무는 후기에 계신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표준 경전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르신 이들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권위로서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1871~1961)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교회 교육의 진로, 개정판(2004년), 10쪽; 또한 복음을 가르침: 교회 교육 기구 교사 및 지도자 지침서(2001년), 4쪽 참조.

받기 위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 그 축복을 베푸는 직분에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으며] …… 큰 지식을 지니는 자가 되며 ……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였으므로,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리를 지닌 정당한 상속인이요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축복은 오직 성전 인봉을 받고 성전 결혼을 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와 인봉되지 않고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머니들에게 속할 권리가 있는 아내 없이는 아버지들에게 속할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외아들인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했다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 수백 킬로미터를 가서 의로운 여성을 찾게 했습니다. 성약을 지키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여성을 찾게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는 열쇠가 있는 남자와 영향력을 지닌 여자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 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축복은 구원의 계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가르칠 책임을 이해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가정과 반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배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청남 청녀는 이 위대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각자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이 성전에 가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준비시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활용하기

- 선언문을 집이나 교실에 걸어 둔다.
- 청소년들에게 선언문을 경전 속에 넣어 간직하도록 권고한다.
- 선언문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경전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연관시킨다.
- 가정의 밤 시간에 선언문을 공부하고 참조한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모, 교사, 지도자 여러분, 청소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을 만한 가정 생활과 가족 생활,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분명하게 생활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은 청소년들이 듣는 모든 소음을 차단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감동을 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완벽보다는 부지런함을 추구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가정에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청소년들은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한다면, 식사 시간을 중요시하고, 배우자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한다면, 청소년들은 그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큰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성전에 가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일에서 낙담하게 만들 만한 많은 위협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청소년을 가르쳐서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오는 교리의 주요 요점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가족에 관한 교리를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교리를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신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가족을 강화하고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던 많은 사회적 기반들이 해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집결하는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 오직 가족에 대해 깊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전통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가족을 정의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덕적 사회가 거치는 어느 특정 발전 단계에 가족 단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짓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압니다.”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 경험을 통해 영원한 가족이라는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지상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그분의 속죄를 통해 가족 안에서 영생을 약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2009년 8월 4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들에게 전한 방송 말씀에서 발췌.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2. 고든 비 힐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0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빛, 1986년 4월호, 4쪽.
4.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자”,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6쪽.
5. 스펜서 더블류 김볼, “가족은 영원함”,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5쪽.

원본 사진 상행: 크리스티나 스키스. 오른쪽 이미지: 일부 성전 사진 촬영 및 사진 상행: 존 루크 © P; 일부 사진 촬영: © GETTY IMAGES

마침내 교회를 찾았다

인 생 대부분 동안 나는 공허함을 느끼며 기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것을 갈망해 왔다. 내가 찾는 것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여러 종교와 철학을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중 상당수는 훌륭했으며,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일부는 이상했고, 내가 찾는 바와는 거리가 멀었다.

몇 해를 그렇게 찾아 다니다가 나는 결국 지치고 낙담했으며, 마침내 포기해 버렸다. 나는 혼자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조직화된 종교와는 가까이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결정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성에 초점을 맞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 사회자는 어떤 후기 성도 가족을 인터뷰했다. 그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나는 내가 오랜 세월 찾아 온 것, 즉 견실한 신앙과 사랑을 느꼈다. 나는 후기 성도들이 가족에 대해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밀란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전화번호가 나왔다.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스테이크 센터에 있는 회원 몇 명과 통화를 했고, 그들은 선교사들이 내게 전화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당시는 내가 특히나 바쁜 시간을 보낼 때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하자고 했을 때 몇 주 뒤에 좀 한가해지고 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며 그 지역 상호부조회 회장 자매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자매님은 내게 전화를 해서 일요일 교회 모임에 초대하셨다. 그렇게 나는 교회에 나갔다. 교회는 공과, 사람들, 그리고 영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무척 행복했다.

그 뒤 두 달 동안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침례를 받았다. 나의 탐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 한때 나를 짓누르던 갈증과 갈망을 더는 느끼지 않았다.

진리를 찾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다. 그럼에도 내 탐구 기간 동안 겪은 일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정말이지 많은 곳을 들여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속할 곳, 꼭 알맞은 곳을 찾아내고 나서 더욱 큰 만족을 느꼈다. ■

바바라 데 지글리오, 이탈리아 롬바르디

나는 조직화된 종교와는 가까이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결정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비전에서 어떤 후기 성도 가족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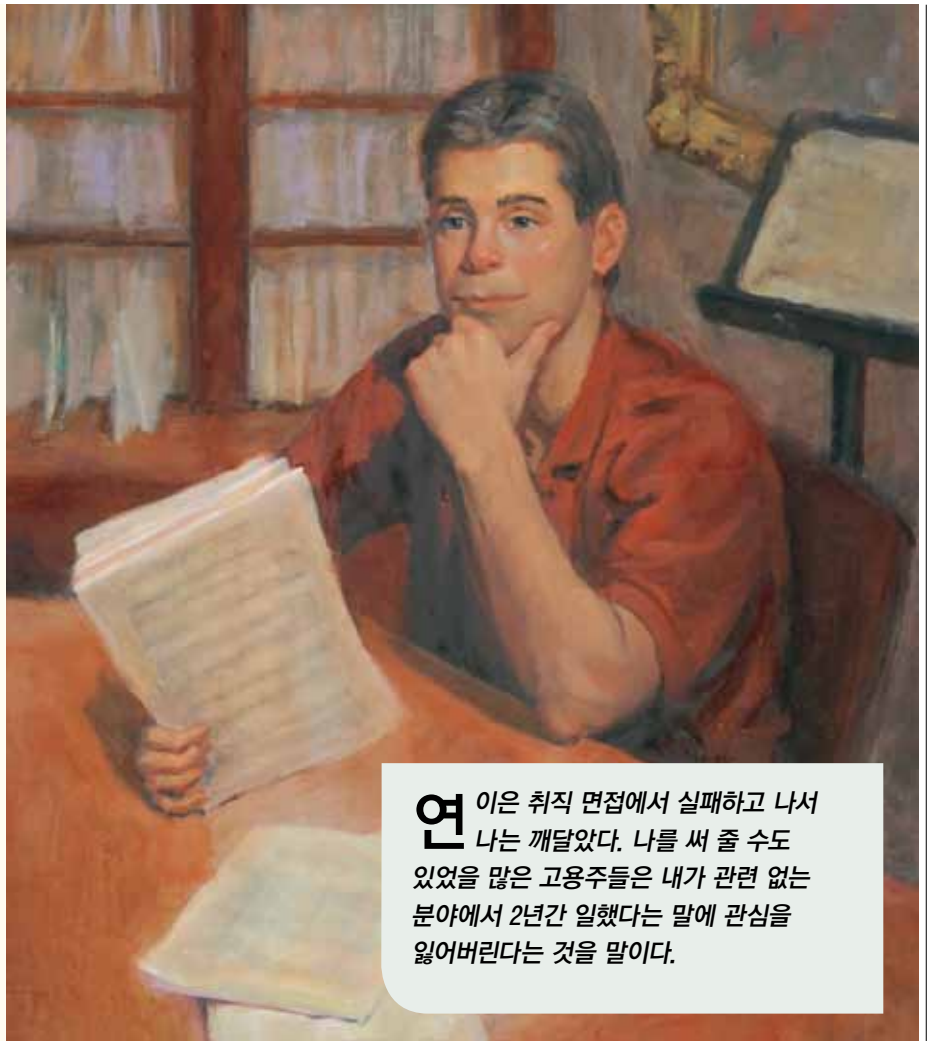
내 진로는 어떻게 되나?

모 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음악 관련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전문 관현악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내 인생 진로는 잘 풀려나갔으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는 전임 선교사 봉사를 늦추기로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봉사에 대한 생각이 안중에도 없었다. 여러 가지 걱정, 특히 내 진로 계획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는 예외이며,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았다.

그러나 감미로운 영적 경험과 좋은 친구들 덕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감독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피 주시며, 내가 회복된 복음에 대해 더 강하고 깊은 간증을 얻도록 사려 깊게 도와 주셨다. 나는 봉사 부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2년이라는 공백 후에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어떻게 내 진로를 회복할 수 있을지 대책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 믿었다. 나는 어떻게 일이 풀릴지 모른 채 직장을 떠났다.

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웨스트 인디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선교 사업은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 2년 동안 나는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연 이은 취직 면접에서 실패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나를 써 줄 수도 있었을 많은 고용주들은 내가 관련 없는 분야에서 2년간 일했다는 말에 관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귀환 후에는 새로운 우선순위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을 둔 삶을 계속 살기로 했다.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기회는 거의 없었다. 연이은 취직 면접에서 실패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나를 써 줄 수도 있었을 많은 고용주들은 내가 관련 없는 분야에서 2년간 일했다는 말에 관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선교 사업은 진정 내 진로에 지장을 주었을까?

감사하게도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거의 석 달이 지난 후에 나는 내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냈다. 나에게서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지원자들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선교 사업 덕분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 나는 세 차례에 걸쳐 면접을 치르고 나서 채용됐다. 봉사를 함으로써 내 경력은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역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한 말이 옳았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리와 성약 123:17) ■

데이빗 후슨, 잉글랜드 런던

동료들에게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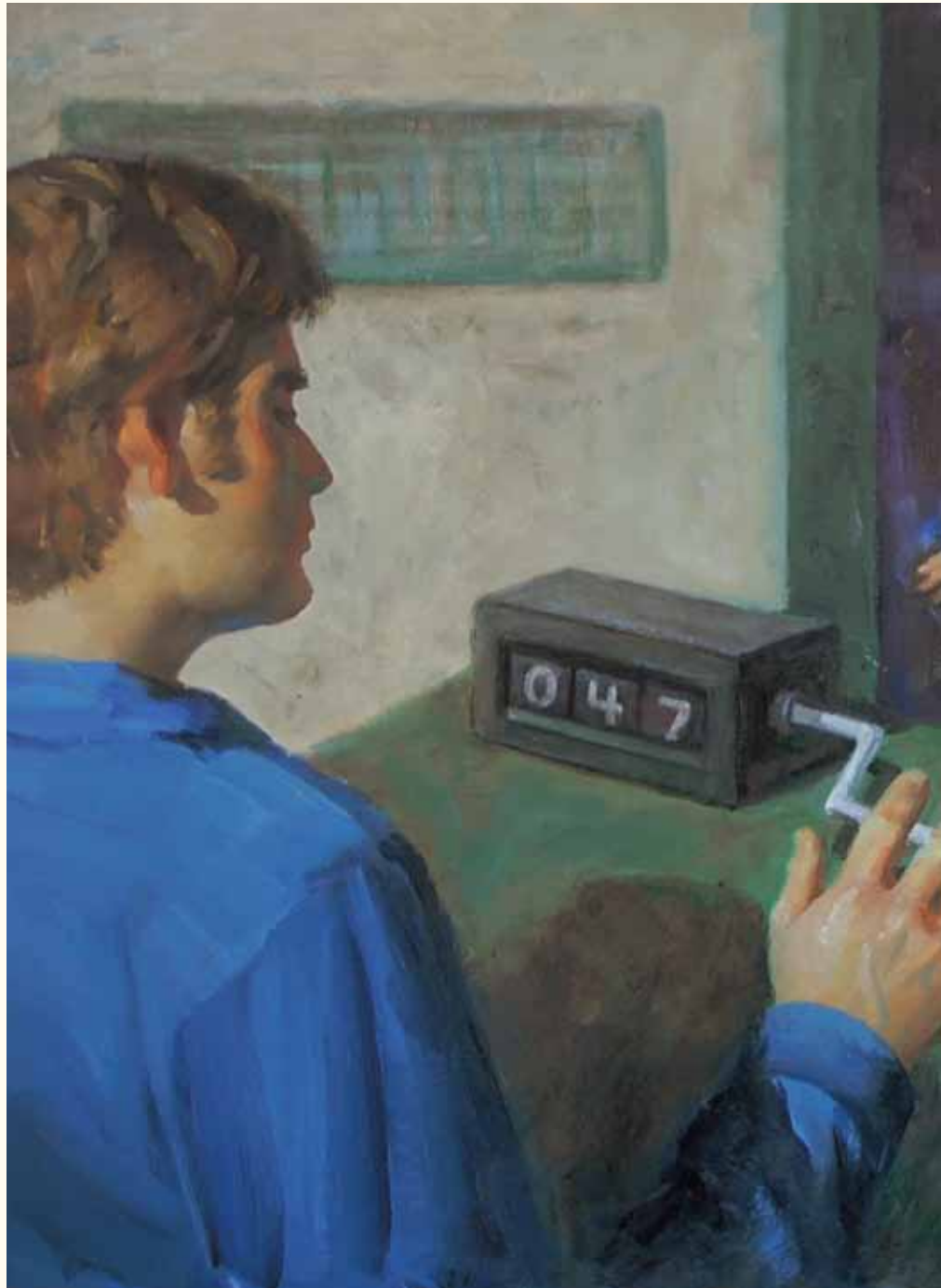
어느 날 아침, 내가 일하는 공장에서
상사들이 모든 직원에게 시간당
수당 외에도 작업 성과에 따라 수당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넉 달 전에 시작된
이 정책 덕분에 나는 선교 사업 비용을
더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고
봉급도 많이 올랐다. 나는 3인 1조
고무경화프레스에서 일했는데, 형틀에서
성형품이 나오고 그에 따라 자동
계수기가 작동될 때마다 예금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과급 제도 때문에
성과를 조작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
동료는 몰래 자동 계수기 옆으로 가서
계수기 손잡이를 몇 번 더 잡아당긴
다음 작업장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
모습을 본 나는 웃어버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저 일을 계속했다. 내가
직접 계수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니 나의
정직성에는 오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나는 우리 조
사람들과 같은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계수기 손잡이를 당겼는가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돈을
훔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훔친
돈으로 선교 사업 비용을 대도 될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다.
봉급에 추가된 수당은 그리 많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동료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장난하는 거야?” 선임 조원인
밥(가명)이 물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
관리자들도 그런다고. 그 사람들도 그럴

거라 예상한 일이야.”

그는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생산량을 부풀리지
않아도 우리 조는 이미 같은 시간대에



새로운 성과급 제도 때문에 성과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동료는 몰래 자동 계수기 옆으로 가서 계수기 손잡이를 몇 번 더 잡아당겼다.

일하는 작업조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종종 다른 조 사람들이 우리 조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조에 있는 짝과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밥에게 제안했다.

“내 생각엔 자네가 어리석게 구는 것 같아. 하지만 짝과 일하지 뭐.” 밥이 말했다.

짝과 내가 조를 바꾼 후, 밥은 가끔씩 자신이 나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굳도다 그 기초”에 나오는 노랫말이 떠올랐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밥의 비아냥을 떨쳐버리는 데 그 노랫말이 도움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짝과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며 조원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돌아가겠지만 이제 어떠한 속임수도 쓰면 안 된다고 밥에게 말했다. 밥은 내 말에 동의했다. 옛 조원들은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더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직과 용기에 관한 시험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옳은 일을 할 힘이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전능한 손”¹으로 받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

케네스 허스트, 미국 앨라배마 주

주

1.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어느 일요일에 우리 스테이크는 멋진 소식을 들었다. 칠십인인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님이 화요일 저녁에 우리 스테이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였다. 나와 우리 가족은 신이 낫지만, 그 모임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었다.

고등학교 교사인 나는 화요일 저녁에 가르쳐야 할 수업이 하나 있었다. 불행히도 나에게서는 좀처럼 휴강이 허락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장로님의 말씀을 듣기로 마음 먹고서 나는 주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가족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모임 전날, 나는 가족과 함께 그 모임에 갈 수 있도록 20분 먼저 수업을 끝내는 것에 대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라는

속삭임을 느꼈다. 교장실에 갔을 때,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은 화요일 수업을 여느 때보다 2시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은지 물으셨다. 그 말은 내 수업이 2시간 일찍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는 여유 있게 모임에 도착했고, 주님의 제자 한 분 앞에 있으면서 영을 느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다섯 살배기 우리 아들은 장로님과 포옹을 하고 짝막한 대화를 나누는 멋진 특권까지 누렸다. 우리는 회중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영을 느꼈다. 게다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간증도 얻었다. ■

미구엘 트론코소,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보살피는 일

- :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 : 교육이 처음이신가요? 다음
- : 아홉 가지 제안을 고려해
- :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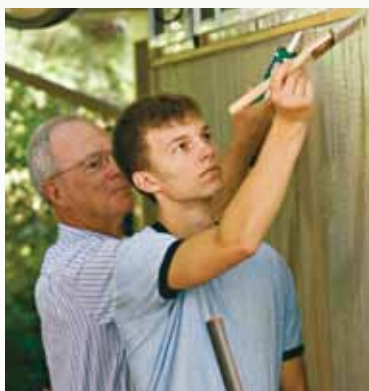
“일 말인진 않지만, 자매님과 함께 방문 교육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줄리 비 백

자매의 방문 교사가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자매는 다림질해야 할 빨래 바구니를 들고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백 자매에게 돌아와서 주저하며 이렇게 물었다. “이것으로 방문 교육을 한 걸로 여겨도 될까요?”

이 일을 회상하면서 백 자매는 눈물을 지었다.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헌신적인 저의 방문 교사는 왜 제가 방문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달 동안 자매님은 몇 번이나 들리셔서 제게 필요한 일을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자신이 저를 계속 보살피고 제 가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을까요? 자매님이 제게 보여 주신 사랑과 관심은 방문 교육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당연히 그 자매님은 제가 방문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백 자매의 경험에서처럼 영감 받은 방문 교육과 가정 복음 교육은 형식적인 방문을 뛰어넘으며, 절대 끝이안 없는 일이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은 과정을 완수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며, 이를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것은 보살피는 일을 의미하지 방문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임무는 구주께서 돌보셨듯이 서로를 돕고 보살피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다.

- **방문 대상자와 동반자가 누구인지 알아 둔다.** 여러분의 워드 또는 지부에 있는 신권 지도자나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여러분의 방문 대상으로 지정된 가족 또는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줄 것이다. 동반자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친분을 쌓아 간다.
- **방문한다.** 가능하면 방문하는 사람의 집에서 만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 근처에서 만나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일요일 모임 전후에 만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로 가르치고 복돋운다. 제일회장단 메시지나 방문 교육 메시지를 먼저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대화한다. 다정하게 대하고 보살피면서 사랑을 키워 나간다.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관계를 잘 유지한다. 우정을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큰 신뢰를 쌓게 될 것이다.
-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방문을 마칠 때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이 좋다. 가장이 기도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 번 방문 때까지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을 하는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저희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한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심에 잠긴 그 어머니는 미혼인 딸이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도덕적으로 안전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딸을 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 딸의 가정 복음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둘 다 그 소녀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에게 슬픔과 비참함을 초래할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영감을 받고 밤에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영의 영감에 이끌려 그들은 그녀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보여 주시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하도록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복음 교사들의 말을 듣는 동안 이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알게 된 유일한 경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했고, 성신은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

주님께서 보내신 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돌보며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제 막 그분에 대한 신앙이 생긴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머링 회장, 제1회장단 제1보좌, “시련의 때를 위한 성신의 은사”(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6년 9월 10일), lds.org/broadcast



방문 교육을 하면서 얻는 축복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교 회에 있는 성인 자매로서 여러분은 방문 교사로 봉사할 기회와 책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방문 교사로서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문하도록 지명 받은 자매를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교육을 하는 자매들에 대해 알고, 그들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사귈다.
- 복음 교리를 나누고 그에 관해 증거할 기회를 얻는다.
- 선한 영향을 주고 자매들을

강화한다.

-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 여러분의 일을 인도하는 영을 감지한다.
-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경험한다.
- 하나님의 성약의 딸로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 **보살핌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짐작해 본다. 예를 들어, 방문 대상 자매가 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주중에 음식을 만들어 주어서 그 자매가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가정 복음 교육 대상 형제가 직장을 찾고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다.
-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한다.** 질문은 위안을 주고, 관련된 복음 원리를 나누며, 의미 있는 봉사를 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어떤 점이 걱정되거나 염려되시나요?” “복음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집안 일을 도와드릴까요?” “가게나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 **영감을 구한다.** 영은 여러분이 가르칠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함께 이야기할 주제나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이 떠오를 수도 있다. 친분을 쌓으면서 여러분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거나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라는 속삭임을 들을 수도 있다.
- **올바른 정보를 보고한다.** 방문하는 사람의 현재적, 영적 복리와 여러분이 제공한 모든 봉사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고한다. 은밀한 문제는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정원회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 **동반자와 조율한다.** 연락하고 돌보는 일을 할 때, 필요에 따라 동반자와 함께 임무를 나눈다. 방문하고 봉사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 보고할 때, 그 일을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기억한다.** 생일처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들을 기억해 둔다. 때때로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

복음을 가르치는 열정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와 저는 연로하신 한 부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고작 몇 주 전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지만 벌써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느낌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방문하고 공과를 가르치면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이 제 마음속에서 강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물을 참고 환하게 웃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청년 성인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영으로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극심하게 유혹하지만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위험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라몬 카스퍼스, 네덜란드

주님의 기쁨

때때로 저는 어려움 앞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동반자와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한 적 없는 한 가족을 가정 복음 교육하도록 지명 받았을 때 제 시각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던 어느 날, 저는 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그저 바다에 떨어지는 한 줄기 빗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아 보였지만 저와 동반자는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문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 가족이 집회소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느낀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어려움은 주님의 기쁨 안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엘마서 31:38 참조) 라티 모고트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일의 친구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유학을 간 뒤부터 방문 교육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방문하도록 지명받은 자매님들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어렵듯이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관계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특별한 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신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금식하거나, 전화하거나, 위로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편지를 쓰거나, 방문하거나 가만히 안아 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 역시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제 또래였고, 어떤 자매님은 나이가 많았으며, 어떤 자매님은 어렸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둔 자매님도 있었고 독신도 있었습니다. 방문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차이점을

나이에 관계 없이

연로하신 자매님을 방문 교육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제 동반자가 그 자매님의 방문 교사로서 가장 알맞은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매님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께 봉사하면서 제가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분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저희 모두의 삶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테보호 느다바, 남아프리카공화국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몇몇 자매님들을 방문 교육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분들의 이름만 알고 있지만 내일이면 그분들과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니리나 제이-란드리아미하리소아, 마다가스카르

해답을 찾아서

비회원 친구들이 저에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선, 친구들 질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전 상징과 의식은 여러 해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성스러움이 덜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징과 의식을 계속 성스럽게 여기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전 의식에 관해 물어본다면 아직 성전 의식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기 위해 성전에 가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분의 역할과, 그분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결심에 집중하는 데”(신앙에 충실함[2004년], 85쪽)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 상징과 의식은 성스러운 것이므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성전 밖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자료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료는 LDS.org에서 몇 가지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책자 *기록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2004년)
- *신앙에 충실함*에서 “성전”, 84~88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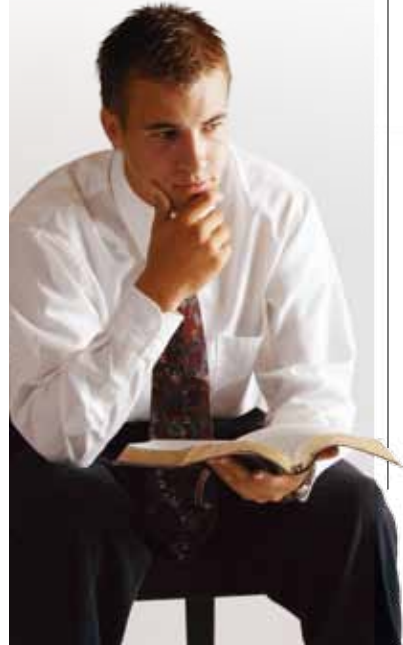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와 친구 사이일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받은 부름을 존중하고, 그들을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불러도 되나요?

때 때로 우리는 지도자들과 아주 가까워져서 그들을 대할 때 격식 없이 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과 그들이 받은 부름에 대해 적절한 존경을 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인들을 보통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호칭은 존경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로, 감독 또는 회장과 같이 좀 더 격식을 차린 호칭 역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서로를 “장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좋은 모범을 보여 줍니다.

몬슨 회장님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신권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 난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들과 이제 곧 장로가 될 청남 여러분에게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내용을 되새겨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신권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가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신권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교리와 성약 82:3)

아론 신권 소유자는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59)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신권 소유자들이 받은 의무입니다. 선교 사업 동안 여러분은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의무를 완수하는 데 온 힘과 시간을 바쳐 집중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받은 의무를 완수하면 항상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큰 기쁨을 느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쪽.

떠나야 할까, 남아 있어야 할까?



선교 사업을 나가기 며칠 전에 부모님은 입원을 하셨다.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로돌포 지아니니

나는 운 좋게도 한 친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게 되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교사들이 나를 가르쳤다. 침례 받고 2년이 지난 후, 나는 이탈리아 밀라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떠나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커다란 경험을 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부모님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사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었기에 나는 몹시 괴로웠다.

선교사로 떠나기 이틀 전,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갑자기 심각하게 편찮으셨다. 어머니는 위독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의사들의 노력도 소용없는 듯했다. 아버지는 간경변증이었는데, 의사들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아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남겨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 주옵소서.”

몇 분간 내가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미묘하지만 속속들이 파고드는 듯한 음성을 감지했고 그 음성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

나는 아파하는 가족들에 대한 슬픈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 로마를 거쳐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 미국으로 나를 데려다 줄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결심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여러 밤을

보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부모님 생각이 계속 났다. 마침내, 훈련원 원장님의 허락을 얻어 부모님이 어머신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로,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시며 두 분 모두 주님께서 내리신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다. 신앙심이 크지 않으신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어머니는 내가 떠난 후 두 분의 건강이 점차 좋아졌으며 의사들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은 건강하고 행복하셨다.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 경험을 하면서 신앙, 기도, 순종이 발휘하는 힘에 대한 간증이 커졌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신앙의 수비수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에 사는 쿠방길라 카산자 셀바는 여러 팀에서 훌륭하게 활약하는 선수이다.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상 대편 공격수가 빠른 속도로 골대를 향해 공을 몰아온다. 골을 넣으리라 자신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셀바가 따라잡아 맞붙는다. 셀바는 공을 차내고는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저는 수비수예요.” 셀바는 열두 살 소년이다. “상대편이 점수를 못 올리게 하는 일이 제 임무예요.”

셀바는 누구나 자기 편에 넣고 싶어 하는 그런 선수이다. 셀바는 조용하지만 단호하며 열심히 뛰 준비가 되어 있다. 셀바는 모든 선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무척 기분이 좋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셀바는 다른 팀, 즉 교회와 가족 안에서도 중요한 몫을 해낸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셀바의 의지도 한몫 한다.

셀바와 니파이

셀바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이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셀바도 니파이처럼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하지 않으시고서는 어떤 명도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해 주시고 저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가서 행하라

셀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배울 때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죠.” 셀바는 자신의 침례식을 기억하며 매일 성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셀바는 최근에 아론 신권을 받았고 언젠가 성전에 가서 주님과 더 많은 성약을 맺을 날을 무척 기대한다. 또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웠다. 셀바는 남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봉사하고자 한다.

셀바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믿이로서 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동생들이 따라 할 수 있으니까요.”

강하게 남아

셀바는 운동과 복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 가족 경전 공부와 개인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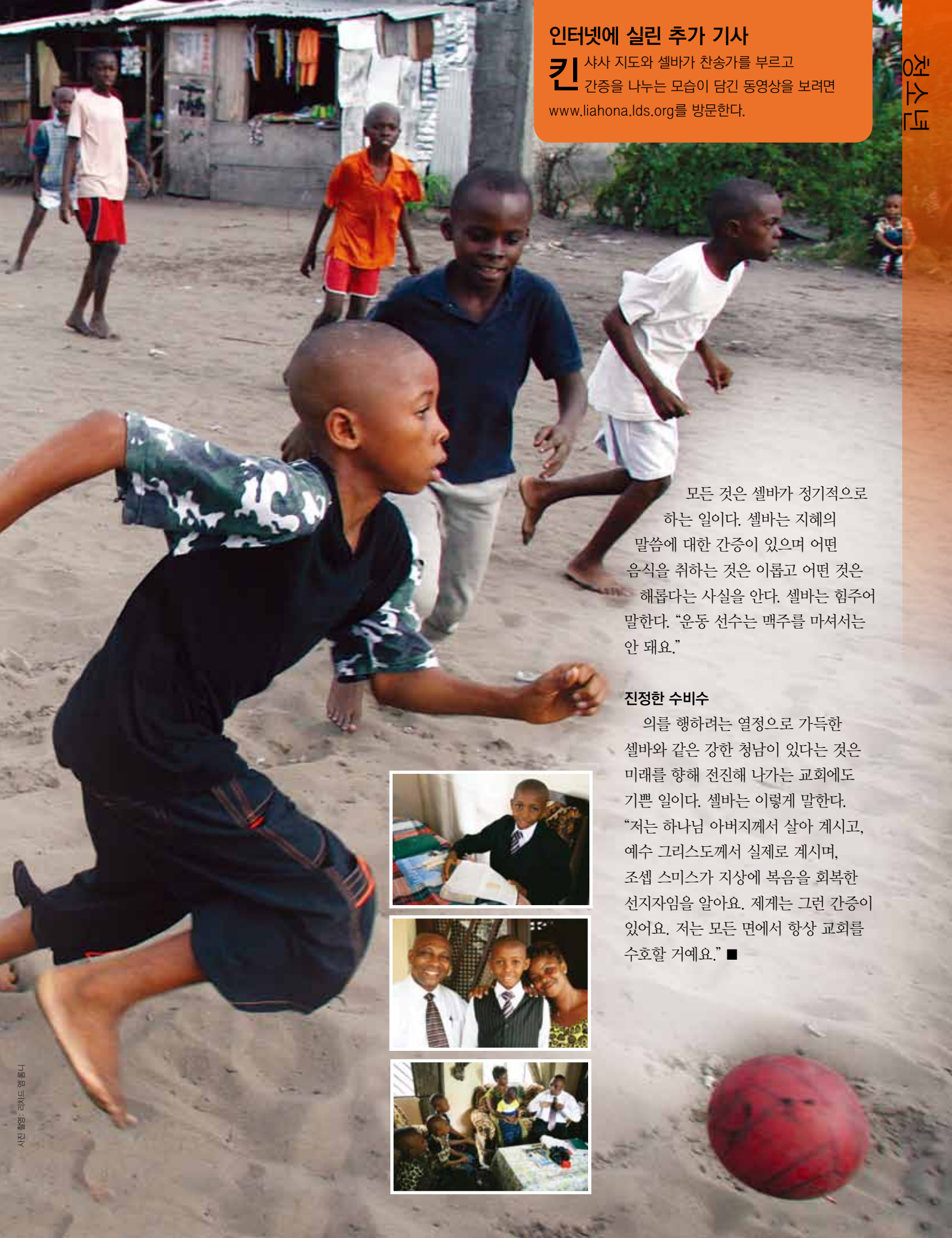
셀바란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이름은 셀바의 아버지 셀레스틴과 셀바의

어머니 발레리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제 이름은 함께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신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떠올리게 해요.”

셀바의 동생들 이름 역시 깊은 의미가 있다. 일곱 살짜리 나단은 성경에 나오는 현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네 살짜리 베니의 이름은 “축복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두 살배기 동생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셀레스틴 이세이지만 지금은 모두들 르브띠뜨(“꼬마”)라고 부른다.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킨 샤사 지도와 셀바가 찬송가를 부르고
간증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모든 것은 셀바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다. 셀바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으며 어떤 음식을 취하는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는 사실을 안다. 셀바는 힘주어 말한다. “운동 선수는 맥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진정한 수비수

의를 행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셀바와 같은 강한 청년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교회에도 기쁜 일이다. 셀바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며, 조셉 스미스가 지상에 복음을 회복한 선지자임을 알아요. 제게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모든 면에서 항상 교회를 수호할 거예요.” ■



관용이란

구주께서는 우리가 악에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 돌려 얹으시며”

관 용은 이 험준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용과 눈감아 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릇된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비행을 여러분이 눈감아 줄 의무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차이는 이토록 중요한 관용을 이해하는 데 핵심을 차지합니다.

두 가지 큰 계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¹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이웃을 포함합니다. 둘째 계명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첫째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2:17)

배경을 초월하는 침례

온 세상에 있는 대륙과 섬나라에서 충실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사랑하는 구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칠 때 문화 배경이나 언어, 성별, 얼굴 생김새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의 참된 형제애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

점을 이해하면 우리를 갈라놓는 벽을 허물고 협동의 다리를 놓고자 소망하게 됩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이 있을 때 대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관용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정 없는 관용의 위험성

이제 중요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조금 있을 때 좋다면, 많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좋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약품도 과용하면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공의에 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없이 관용을 베풀면 쫓대 없이 수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한계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찾길에서 뛰어 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악에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 돌리 없으시고”(마태복음 21:12; 또한 마가복음 11:15 참조) 비록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을지라도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1)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묵인해 주지 않고 용기있게 대항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행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관용과 상호 존중

우리가 구주께 헌신하면 죄는 꾸짖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돌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가운데 함께 살아야 합니다.² 우리 각자는 이 지상 생활이 더욱 유쾌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하겠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인종적 혹은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론을 앞세워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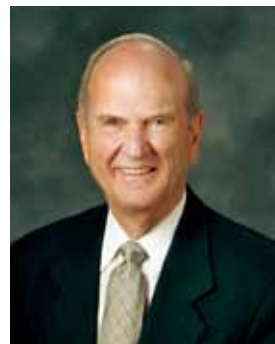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칭송받기에 마땅한 관용과 상호존중이라는 덕목에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전념하기를 촉구합니다. 배려와 동정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상대방과 차이가 아무리 클지라도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³

우리는 다같이 죄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성스럽게 받드는 대상이 서로 다른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이 후기에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1994년 7월호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주

1. 마태복음 22:36~40; 요한복음 13:34~35; 15:12, 17; 로마서 13:8; 데살로니가전서 3:12; 4:9; 베드로전서 1:22; 요한1서 3:11, 23; 4:7, 11~12; 요한2서 1:5 참조.
2. 창세기 1:28; 교리와 성약 59:15~21; 모세서 2:28; 아브라함서 4:28 참조.
3. 1992년 10월 18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성명서; “Church Exhorts Ethnic, Religious Tolerance”에서 인용됨, Church News, 1992년 10월 24일 4면.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께서 성직을 깨끗하게 하시다, 할 아만리히 블로크, 덴마크 헬메르스보르 소제 국제 국무 역시 비물민국의 향기를 받아 사용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철십인

일 본 마츠모토에서 십대 시절을 보내던 저는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열일곱 살 때는 고등학교 영어 동아리에도 들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 저희 동아리는 영어 회화를 가르쳐 줄 영어 원어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을 찾기도 찾았지만 저희가 접촉해 본 영어 교사들은 수업료를 원했고, 저희 동아리는 돈을 낼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저희는 실망한 나머지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에 양복을 입은 젊은 미국 남자들이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단지 한 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과 후에 그 전단지를 살펴보다가 그것이 무료 영어 회화반에 오라는 초대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 보는 교회였지만

교회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은 제게 더 배워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들은 제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영을 느꼈으며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원리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침례를 권유했을 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부모님께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서서는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이 외국에서 온 것이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저희 집에 와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저에게 가르친 내용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은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고 이번에는

택함 받은

부모님께서 침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영어 동아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한 것입니다!

영어 회화반이 열린 날, 저와 함께 30명 남짓한 동아리 회원들이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수업을 가르쳤는데 저희 모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업 첫날부터 저는 선교사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온정과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와 쾌활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 주위로 빛이 에워싼 것 같았는데 저는 그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주 뒤에 저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침례와 확인을 받은 뒤 저는 활동 회원이 12명에서 15명 가량되는 조그마한 마츠모토 지부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약 일 년 뒤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 요코하마로 이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부는 활동 회원이 150명 이상 되는 도쿄 중앙 지부였습니다. 이 새로운 지부에 참석했을 때 제가 마치 대도시에서 온 시골 소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회원이었던 학과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제 마음은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츠모토 지부에 있는 한 자매님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제님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분명,
새로운 지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자매님에게
제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교리와 성약 121편 34절을 편지에
인용했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고이치 형제님, 형제님은 교회
회원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형제님은 부름을
받았지만 더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후회했습니다.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돌아가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살아 계시고
실존하시는지 알려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구주이시고 이
교회가 참된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자의 기쁨

어떻게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계 강한 간증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확신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구주이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초조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선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들은 세계 모로나이서 10장
3~5절을 읽어 보라고 권유하며 제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교회와 계명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로나이가 약속한 것처럼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따뜻한 느낌에 감싸였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참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고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저는 곧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갔으며 계속 충실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얼마 뒤 교회는 요코하마에 집회소를 짓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부 회원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기금을 내고 건축 일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선교부 회장이 지부

**침례 받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가지 목표

1. **최대한
고등교육을 받는다.**
2.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다.**
3. **성전에서
결혼한다.**
4.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기른다.**

회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기여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매일 대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는 공사 일을 도왔습니다.

네 가지 목표를 완수하며

이 무렵,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시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장로님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김볼 장로님은 교회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완수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1) 최대한 고등교육을 받을 것, (2)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것(특히 청년인 경우), (3) 성전에서 결혼할 것, (4)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기를 것. 그때까지 저는 이 네 가지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네 가지 목표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택함 받은 자의 길에 머물려면 주님의 종이 전한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김볼 장로님께서 주신 권고를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저는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건축 선교사로 봉사하며 제 조국에 집회소 두 개를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 귀환하고 얼마 뒤, 저는 제게 편지를 보낸, 마츠모토 지부에 있던 자매님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무역 회사에서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면서 저는 다시금 제가 택함 받은 자의 길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길에 머물고자 노력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계속 부르시며 그분을 따르라고 간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교회에서 침례 받음으로써 그분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 충실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므로써 끝까지 견디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의롭고 합당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성전에서 결혼하고 영적, 현세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십시오. 아직 간증을 얻지 못했다면 무릎을 꿇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응답이 오면 주님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의 길에 오르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십시오. ■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소녀

겁이 났지만, 무서움을 극복하는 비밀 무기를 찾아냈다.

미셸 글라우서

여러 달 동안 나는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이 날을 준비했다. 나는 이론 지식에서부터 암기한 곡을 강악법에 따라 연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학생의 모든 면을 채점하는 연례 대회인 음악 성취도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침내 대회 날은 다가왔고, 나는 무척 긴장이 되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곡을 연주하는 시간은 대회에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다. 곡을 충분히 숙지했지만 연주를 시작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연주는 끝이 났다. 이제 안심할 수 있었다. 작곡가에 대해 발표하는 구두 시험만 치르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시험 장소를 제대로 찾았고 두 개 문 앞에 늘어진 줄에서 기다렸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눈을 돌려 왼쪽 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에서는 한 다정한 선생님이 긴장한 채 들어오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학생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다른 피아노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더 나이 든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엄격해 보이셨고, 그 모습을 보자 내 손끝은 차갑게 얼어 버렸다. 그분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겁이 났다. '왼쪽 방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준비해 온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줄에서 맨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왼쪽 방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끝나기를 빌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오른쪽 방 학생이 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꼼짝없이 그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활짝 웃어 보자.'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에 없이 활짝 웃으며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행복한 듯 행동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심사위원과 악수하며

활짝 웃었다. 그런 다음 분명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었고 이따금씩 멈추어 그분을 향해 방긋 웃었다. 보고를 마친 뒤, 나는 시간을 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이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방을 걸어나오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고 행복했다.

몇 달 뒤, 피아노 선생님께서 심사위원들이 남긴 의견을 읽어 주셨다. 마지막 의견을 읽으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와, 이 심사위원은 네게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 이렇게 쓰셨어. '미셸,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소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그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싫은 내색을 보이기보다는 그 일을 보람 있고 즐거운 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나는 내 태도가 그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나는 어려움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다. ■

특별한 증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이 주제에 관한 생각을 나눈다.

복음은 제가 행복해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2002년 8월 2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도록 준비하기 위해 온유, 사랑, 친절, 행복, 슬픔, 실망, 고통, 심지어 육체적 한계까지도 경험합니다. 지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와 영원한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근원과 동기가 됩니다.

복음 원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며,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구주께서 주신 복음을 더욱 부지런히 공부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실천할 뿐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셀 수 없는 축복과 더불어 더 큰 힘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며,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여]"(교리와 성약 88:118)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직접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의 수술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84:35)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엘리는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러 잔뜩 알려주고 간 숙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엘리는 중이염 때문에 학교를 한 주 더 결석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엘리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신 어머니는 엘리의 손을 지긋이 잡으셨습니다. “엘리,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수술이요?”

“선생님은 염증이 더 생기지 않도록 네 귓속에 관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셔. 아프진 않을 거야. 하루 만에 퇴원할 거고.” 어머니는 엘리의 손을 꼬옥 감싸 주셨습니다.

엘리는 부모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엘리는 초등학교에서 조셉 스미스에 관해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일곱 살 때 조셉은 다리 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심해지자 의사는 뼈 중 일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셉이 다리를 잃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의사들은 수술을 하는 동안 고통을 덜 느끼도록 사람들에게 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의사가 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몸을 묶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조셉은 아버지께서 잡아 주시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수술 내내 조셉을 팔로 꼬옥 안아 주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조셉은 회복되었습니다.

엘리는 조셉이 보인 용기와 조셉의 아버지가 보여 준 신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게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아빠?” 엘리가 아빠에게 여쭙어 보았습니다. 엘리는 신권 축복이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학년 초에 엘리는 아빠에게서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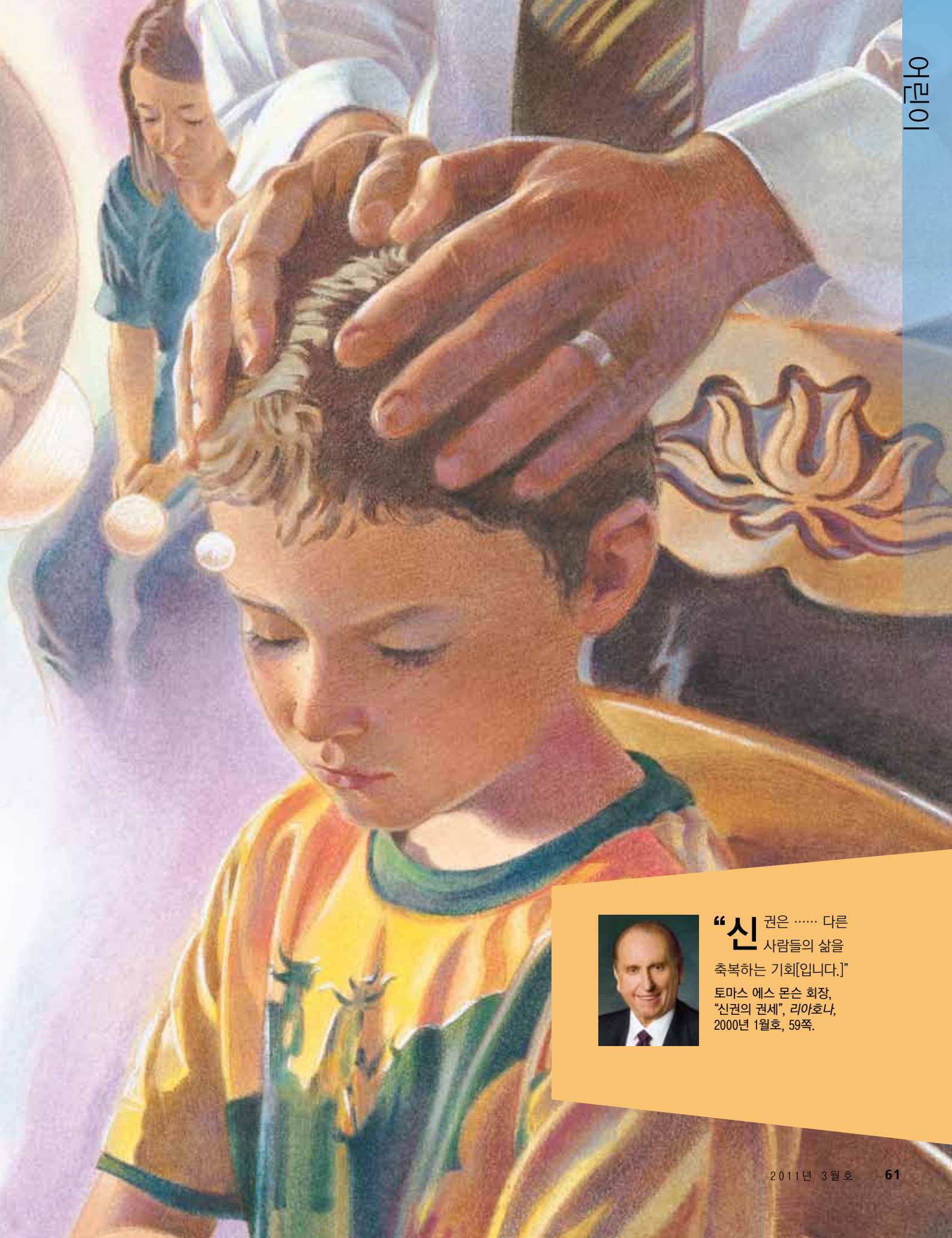
“그러자꾸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어머니는 두 팔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엘리는 아빠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완전히 나를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동안 아빠의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엘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엘리가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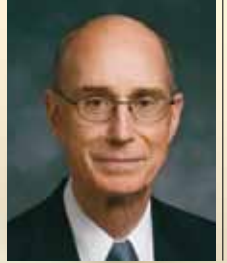
사흘 뒤에 엘리는 병원으로 갔고, 다음 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중이염은 금세 사라졌고 엘리는 그때까지 못하고 쌓아 둔 숙제를 재빨리 끝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어서, 그리고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신** 권은 ……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59쪽.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어 보세요

하 나님을 있는 것은 태초부터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있어 온 문제였습니다. 모세 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셨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 않도록 조심하라”(신명기 4:9)

하나님께서 베푸신 친절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증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이 노래를 기억할 것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매일 그날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적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트리지 않았습다. 아무리 피곤하거나, 또는 아무리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다. 저는 쓰기 전에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다. “오늘 나는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가족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는가?” 마음속으로 하루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군가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다. 그것은 그날 분주한 일과 속에서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다. 제가 하루를 되새기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일을 제게 알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부분이 지금껏 인식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며, 그분을 기억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

200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우 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는 축복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어령 회장님이 기록을 해보면서 그것을 알아냈듯이 말입니다.

1 공책이나 일지, 펜 혹은 연필을 침대 곁에 놓아 둡니다.

2 매일 밤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 날짜
- 그날 일어난 좋은 일 두세 가지
-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3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떠올린 좋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세요. 또한 여러분이 찾아낸 축복을 가족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사진 삽화, 웨스턴 쿨튼; 삽화, 케이스 크리스티슨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방법

구 약 출애굽기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이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는지 나옵니다. 각 문제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해 주신 축복과 짝지어 보세요.

문제		축복
1. 주님의 선택된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 주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마침내 백성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2.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그 중 일부에게는 스스로를 보여 주셨습니다.
3.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만, 곧 군대를 보내어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뒤를 쫓게 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4.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5. 음식이 떨어졌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마.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6.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 주님께서 백성에게 꿀을 바른 빵과 같은 맛이 나는 음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나라고 불렸으며, 사람들은 매일 아침 땅에서 만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앤 차일드, 크리스티나 프랑코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만 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도록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지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으며 신뢰할 만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감 어린 말씀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의 글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배워 봅시다.

말라기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말라기 3:8~10 참조)

엘마 이세는 대판사직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 온 나라를 두루 다녔습니다.(엘마서 4:15~20 참조)
엘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물몬경을 읽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1~20 참조) 조셉 스미스는 온 생애를 바쳐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선지자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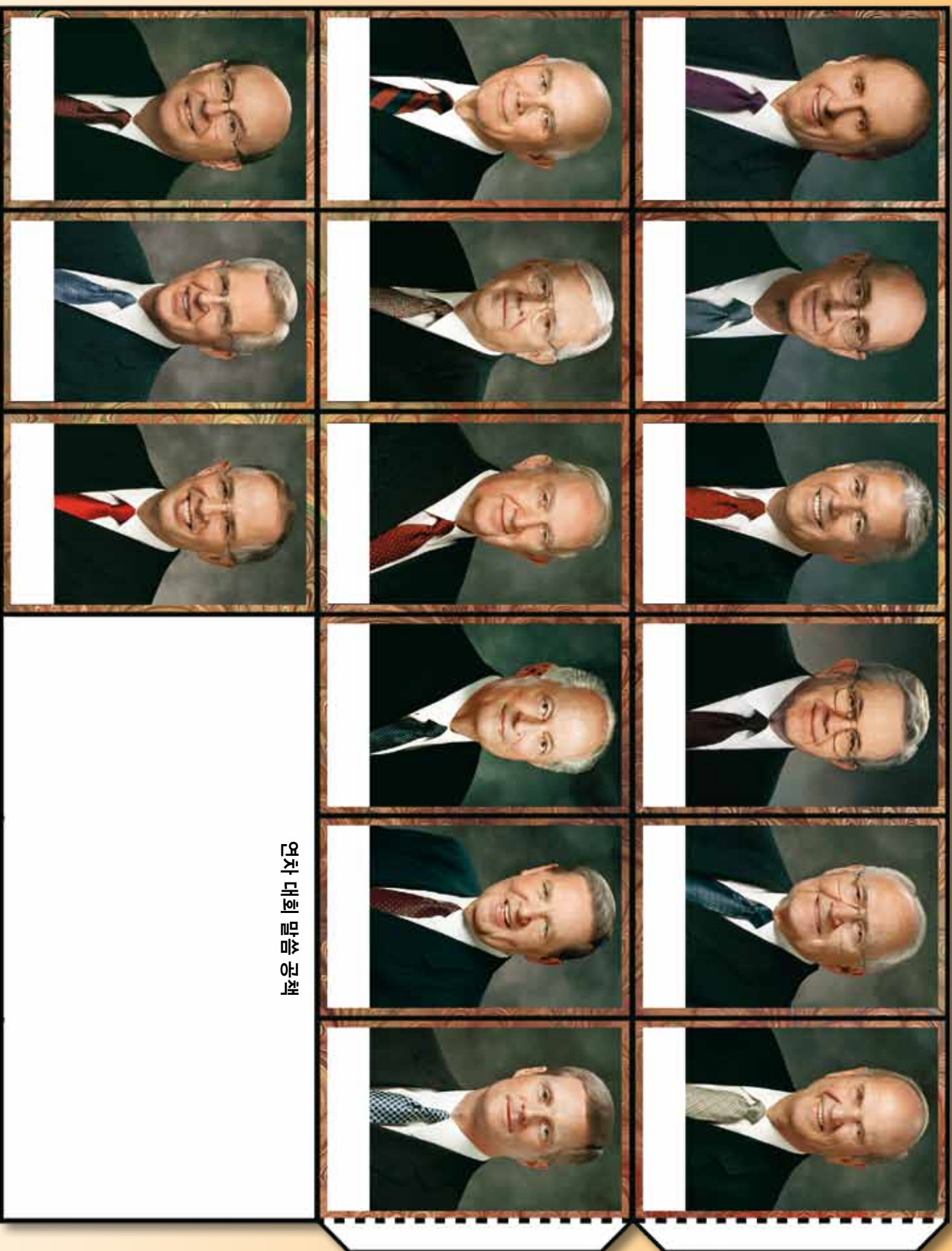
활동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사진이 담긴 종이 조각을 잘라 낸다. 종이의 한 쪽 끝 부분을 다른 종이의 끝 부분에 붙인다. 선을 따라 종이를 앞 뒤로 접어 책자를 만든다.

아래에 나오는 이름을 사용하여 사진 아래쪽에 각 총관리 역원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연차 대회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뒷면에 그 말씀을 기록한다.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나 가정의 밤 시간에 연차 대회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눈다. ■

- 토마스 에스 몬슨
- 헨리 비 아이어링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 보이드 케이 패커
- 엘 톰 페리
- 러셀 엠 넬슨
- 덜린 에이치 옥스
- 엠 러셀 벨라드
- 리처드 지 스코트
- 로버트 디 헤일즈
- 제프리 알 홀런드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 쿠엔틴 엘 쿡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 닐 엘 앤더슨





연차 대회 밑숨 공책

활동의 날에서 받은 응답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라.”
(이터서 12:6)

정 말 끔찍한 날이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혼자였다. 우리 가족이 새로운 동네에 이사온 지 2주가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친구가 없다!

새로운 우리 집으로 걸어가는데, 길 건너에 사는 아이와 놀고 있는 여동생이 보였다. 동생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 로사 언니!”

나는 고개를 돌리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리 골목에 사는 여자 아이 세 명이 동생과 또래였다. 우리 골목에 사는 내 또래 여자 아이는 몇 명이냐고? 없다. 정말 한 명도 없다!

나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바닥에 가방을 툭 하고 내려놓았다.

“초등학교에 계시는 가르시아 자매님이 전화하셔서 오늘 활동의 날이 있다고 알려 주셨단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활동의 날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투명스럽게 말했다. “지금까지 온종일 모르는 아이들과 보냈어요. 또 다시 모르는 아이들과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일이 쉬울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옛 친구들을 모두 두고 이곳으로 이사오는 일이 힘들었다는 건 엄마도 알아.” 엄마가 말씀하셨다. “곧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단다.”

“저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그렇게 기도드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손을 꼬옥 잡아 주셨다. “가르시아 자매님의 전화가 응답일지도 모르지.”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게 어떻게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죠?” 나는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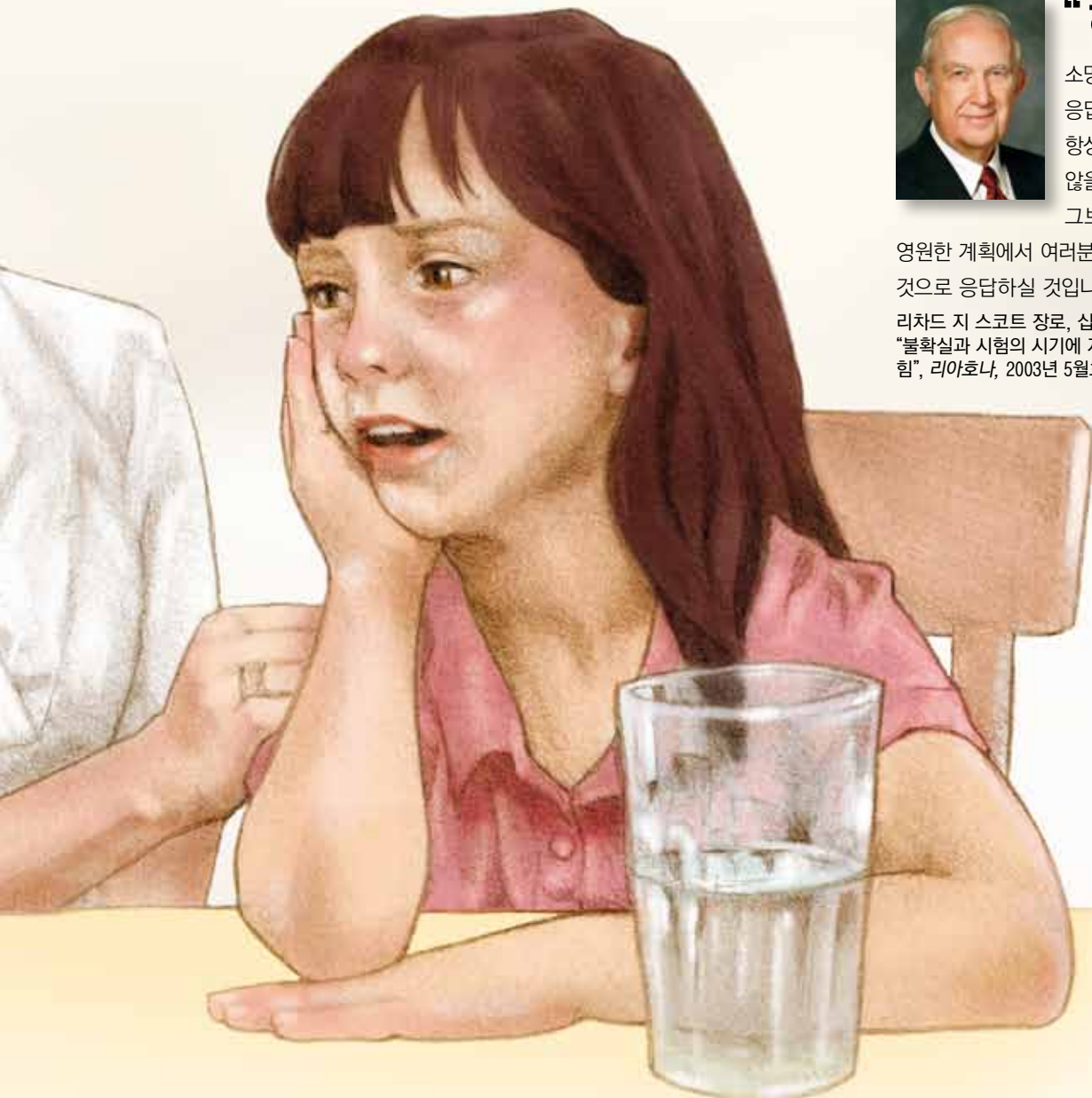
“때때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신단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것을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때때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신앙을 행사해야 한단다.”

나는 ‘그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했다. “활동의 날에 가는 것이 정말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나중에 엄마는 활동에 가도록 차로 바래다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겁이 나긴 했지만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가슴이 고동쳤다. 가르시아 자매님이 나를





“하
 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에 따라 즉시
 응답을 주시는 일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6쪽.

반기며 탁자 옆 의자로 데려가셨다. 자매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스한 웃음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탁자 맞은편에 있는 여자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안녕, 난 테레사야.” 그 아이가 말했다. “새로 이사 왔니?”

나는 감격한 나머지 목이 메어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학교에서 너를 본 것 같아. 무슨 반이니?” 테레사가 말했다.

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리 선생님 반이야.”

“난 바로 옆 반이야!” 테레사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자기 반과 제일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심지어 롤러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았다!

활동이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오셨을 때 나는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엄마, 새 친구인 테레사와 놀아도 돼요?” 내가 테레사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자 테레사도 내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남은 저녁 동안 새 친구와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우리 골목을 돌아다녔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드렸다. 물론 처음에는 활동의 날에 가는 것이 겁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갔고, 그래서 기쁘다. 신앙을 행사할 만큼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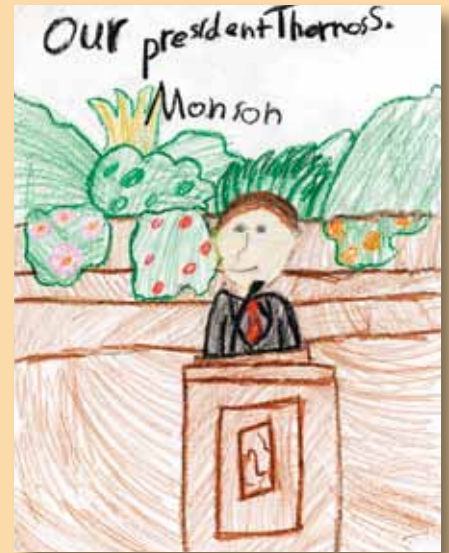
소냐 케이, 5세, 러시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 것은 2년 전에 제가 침례 받던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그날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은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직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항상 부모님께 성전에 가셔야 한다고 알려 드립니다.

밀튼 아론 브이, 10세, 에콰도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타일라 제이, 7세, 미국 유타 주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또는 간증을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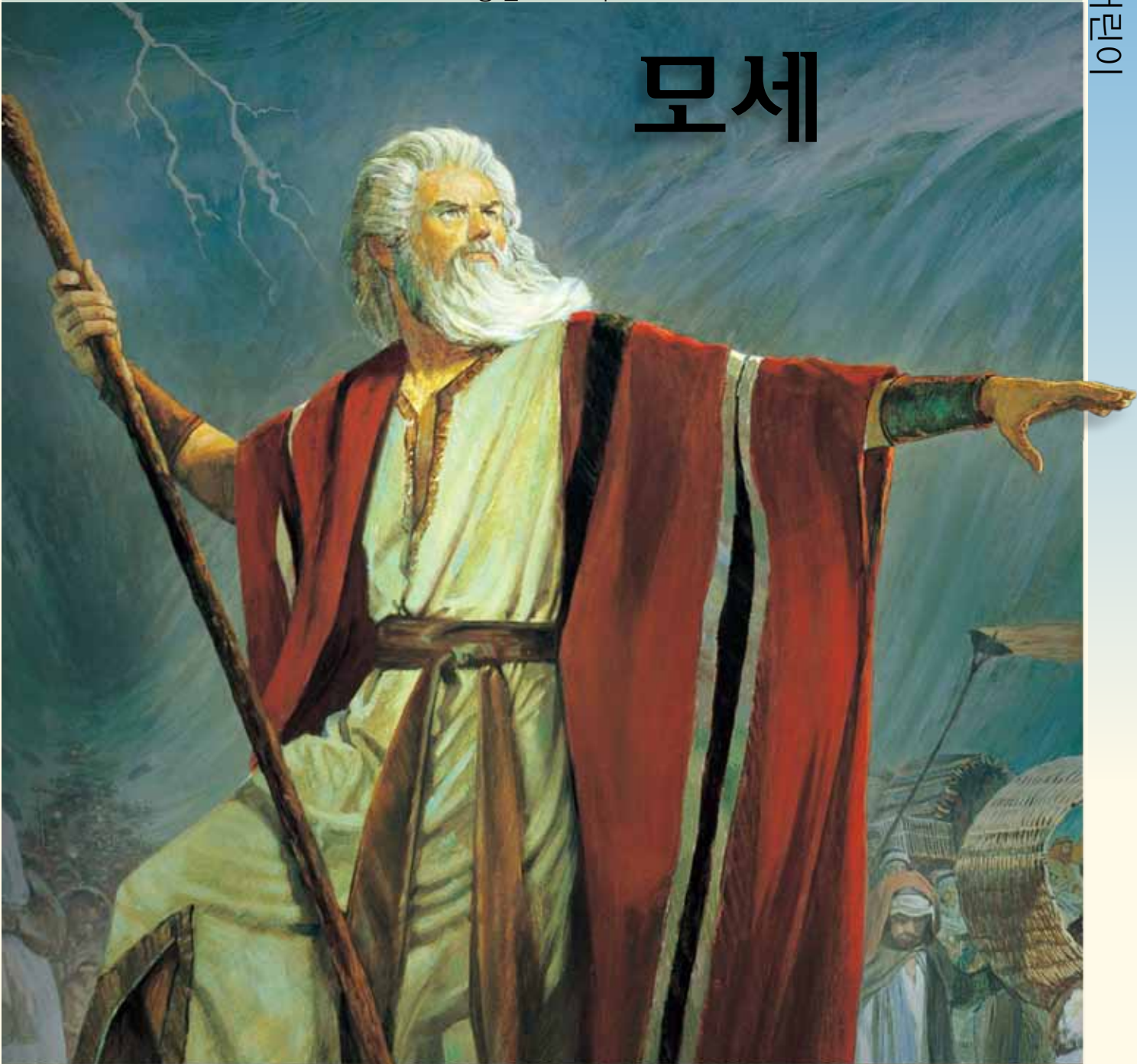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3세에서 12세 사이여야 함),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 및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포함시켜 주세요. 제출물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셀레스테 (7세)와 구일리아나 시(6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자기 방을 정리하고 장난감과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바쁘실 때 남동생을 돌보고 함께 놀아 줍니다. 이 가족은 함께 성전 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셀레스테와 구일리아나는 그렇게 할 때 가족이 더욱 단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



모세에 관하여

주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명하실 때 그 이유를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신앙으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알고 싶나요?

출애굽기 3~14장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출애굽기 19~2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범

로리 윌리엄스 소우비
실화에 근거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1. 다니엘은 신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페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회원은 아니시지만 다니엘은 두 분을 사랑했고 두 분도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2. 페루에 도착한 다니엘은 조부모님을 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조금은 집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페루는 다니엘이 사는 스페인과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

왜 기도록 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기도할까요?



그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니?

5.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감아야 해요.



6.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도와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7.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머무는 동안에는 모두 함께 매일 아침과 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8. 다니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세요

다니엘은 좋은 모범을 보여 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여 주는 다니엘 그림 옆 동그라미에는 행복한 얼굴을 그려 넣으세요. 나쁜 모범을 보여주는 다니엘 그림 옆 동그라미에는 슬픈 얼굴을 그려 넣으세요.

부모를 위한 제언

-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범” 이야기를 읽는다. 누군가가 보인 훌륭한 모범이 도움이 된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눈다.
- 물론경에 나오는 아빈아다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모사이야서 11~17장 참조) 아빈아다이가 확고하게 모범을 보이고 가르쳤기 때문에 엘마가 진리로 개종했다고 설명한다.



경전 맞추기

경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 준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경전에 어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줄을 따라가 보세요.



오른쪽: 시지 우리 속의 다니엘, 클리 펠리 프레이스 © FR; 선지자 조셉 스미스, 앨빈 기텐스; 예수님에게 충성을 주는 영매 요한 그레그 케이 올슨, 복사 금지; 왼쪽: 값진 진주, 니파이, 침례 요한, 조셉 스미스, 다니엘

대회 말씀을 적용하여 삶을 바꾸다

멜리사 메릴
교회 잡지

미 국 유타 주에 사는 제러드 스미스와 캐슬린 부부는 2010년 10월 연차 대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자녀와 함께 차를 타고 부근에 있는 화려한 가을 단풍을 둘러보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스미스 형제는 성별된 기름병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언제든지 신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신권에 관한 말씀이 머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을 동반하여 봉사하십시오”,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11월호, 59쪽 참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스미스 부부는 바닥에 쓰러진 어린 소녀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 소녀는 머리 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한 여성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들었다. “누구 성별된 기름을 가진 분 계시나요? 제발요!” 스미스 형제는 재빨리 기름을 꺼내어 소녀의 아버지에게 건넸다. 신권 축복 후, 소녀는 의식을 회복하고 부모와 이야기도 나누었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소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스미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때마침 그 장소에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제게 기름이 있었다는 것과, 아이어링 회장님 말씀처럼 준비되어 있는 데에서 오는 파스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들은 신권 권능에서 오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린 소녀와 그 가족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스미스 가족처럼 많은 가족이 연차 대회에서 받은 권고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다. 이제 회원들이 또 다른 연차 대회를 준비하는 이때에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세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영어로 된)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거나 (어떤 언어로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면 LDS.org를

방문하여 Church News and Events(교회 소식과 사건)란에서 lds.org/church/news/how-general-conference-changed-my-life에 있는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읽는다.



뉴질랜드에 사는 앤 앤 테 카워 타러루어, 뉴질랜드

테 카워는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가 전한 대회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인도를 간구할 자신감을 얻었다.

2010년 초, 나는 몇 가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감독님은 내게 전문 상담가를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안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 치료 분야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상담자이고 외부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다.

4월 연차 대회가 다가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여러 문제와 자존심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었다. 칠십인이신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노라”(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5월호, 101쪽 참조)라는 제목으로 고난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말씀하셨다.

그분 말씀에 감동한 나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얻고자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나는 신앙을 구하고 싶었다. 구주께서 성신을 통해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는 대회장을 떠났다.

두 주 동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명상한 후, 결국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다. 상담은 유익하고 성공적인 경험이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마르티노 장로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며 용기를 얻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면서 나는 지속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시련을 극복하는 길임을

안다. 주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안드레아 루체, 미국, 텍사스

남편 콜린과 나는 2009년 10월에 부모가 되었다. 딸 엘리자가 5개월이었을 무렵, 우리는 그 아이를 언제부터 가정의 밤과 경전 공부에 참여시킬지를 상의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깨워서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가 물몬경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정말로 아이가 얻는 것이 있을까?

201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연령의 청소년들과 심지어 유아들조차도 물몬경이 불러오는 특별한 영에 반응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렇습니다.”(“깨어 항상 힘쓰며”,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5월호, 40쪽)

우리가 만든 변화는 단순하고도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엘리자에게 규칙적으로 초등회 노래 CD를 틀어 준다. 저녁 식사 때에는 아이와 물몬경 몇 구절을 읽는다. 또한 엘리자가 잠들 무렵에 가족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산책할 때에는 새들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새들을 만드셨단다.” 하고 말해 준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딸 아이는 이해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앞날에 대한 많은 걱정거리를 덜어 준다고 믿는다. 엘리자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한다면 훗날 그 축복은 우리 엘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콜린과 안드레아 루체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대회 말씀에서 그들이 구하던 해답을 찾았다.

실러 파카토우, 영국, 웨스트 미들랜즈

우리 가족은 모두 바쁘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주거나 친절이라든지 예의를 표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가오는 연차 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5월호, 95쪽 참조)는 우리의 기도와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

나는 특별히 헤일즈 장로님의 손자가 “할아버지, 거기 계신 거 맞아요?”라고 물었다는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거기에 있다는 말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교감한다는 것은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녁 식사에서 우리는 그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전 속 가르침이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눈다.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 위해 시간을 내려면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의 일부가 되자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느껴졌다. 대회에서 받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면서 다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걱정 대신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을 느낀다. ■

작은 공간에 자립의 씨앗을 뿌리다

엘리 셸트
복지부

만은 교회 회원들이 아파트나 텃밭을 만들 공간이 없는 작은 집에 산다. 일부 회원들은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에 살고, 어떤 회원들은 먹을거리를 재배할 시간도 없으며, 재정적인 형편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신앙과 근면함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하면 누구라도 텃밭을 가꿀 수 있다.

식물을 재배하라는 권고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이 원리에 순종할 방법을 모색한다면 회원들은 스스로 찾아낸 해결책에 놀라워할 것이다. 여기 그 권고를 따른 회원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소개한다.

예산에 맞춰 가꾸 보세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작은 연립 주택에 사는 노엘 캠벨 자매는 식물 재배에 필요한 재료 대부분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캠벨 자매는 세탁 세제 용기를 비롯해 고양이 변기통까지 모든 현 용기를 이용하여 테라스에서 채소를 심기 시작했다.

캠벨 자매는 작은 용기에서 그렇게나 많은 식물을 길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후 그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여 정원을 넓혔다. 오래된 책 선반과 깡통은 높다랗게 세워지는 정원이 되었다. 낡은 일인용 트램펄린(쇠 틀에 넓은 그물망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기구-웁긴이) 틀은 콩이나 완두콩처럼 타고 오르는 식물 지지대로 쓴다. 심지어 오래된 바비큐 그릴은 토마토를 받치는 데 쓰인다.

노엘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현 용기를 이용해서 텃밭을 일구는 일은 정말 멋져요. 가로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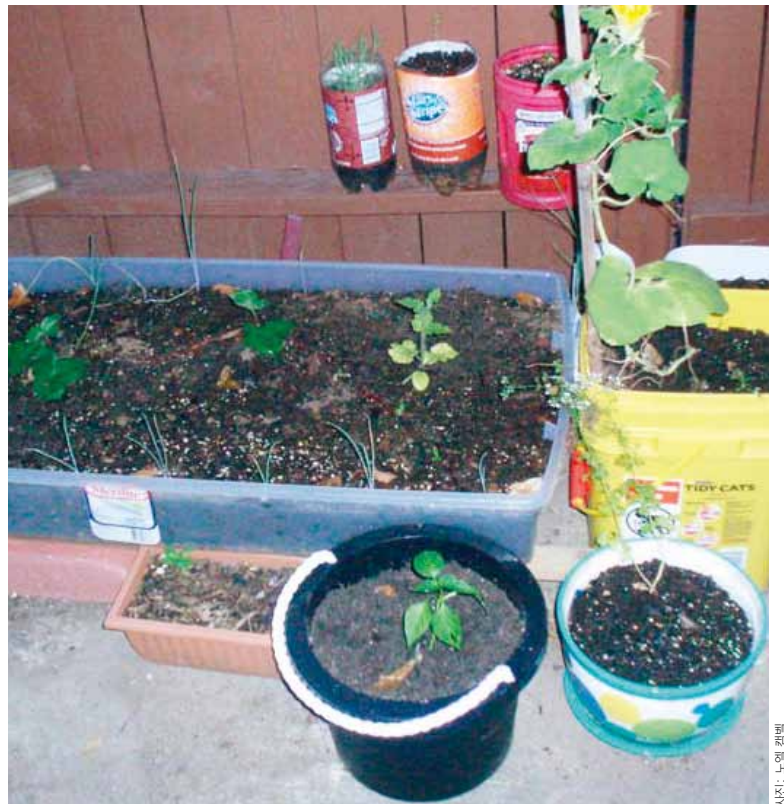


사진: 노엘 캠벨

**상자, 들통, 병과
기타 용기들이 작은
공간을 생산적인
정원으로 바꾸는
데 사용된다.**

2.5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콘크리트 테라스가 먹을거리와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텃밭이 되다니 근사하지 않나요?”

용기 활용

캐나다 앨버타 주의 셸리 마틴 자매는 탄산음료 병이나 주스 병처럼 평범한 용기에 식물을 어떤 종류라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다. 용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텃밭을 일군 비결은 자연광이든 식물 성장을 돕도록 만들어진 조명이든 적당한 빛을 쬐어 주고, 더욱 자주 물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용기에서 재배할 때에는 일반 정원보다 물기가 빨리 마르기 때문이다.

셸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올해에는 뒷 베란다에 있는 용기 몇 개에 식탁에 올릴 채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허브를 비롯한 상추, 토마토, 양파, 부추, 후추까지 심었죠. 뭐든 원하는 대로 가꿀 수 있어요.”

직접 해 보면서 배운다

홍콩에 사는 관 와 감 자매는 처음에는 가정 비축물에 보태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기로 했다. 먹을거리를 키워 본 적은 없었지만 필요한 방법은 모두 책에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책에서 얻은 정보도 유익했지만 관 자매는 그보다는 실제로 식물을 키워 볼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매년 경험이 쌓이면서 각 씨앗에 맞는 가장 좋은 흙과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구별하는 방법, 식물에 물과 비료를 주는 여러 방법과 다양한 채소를 키우는 데 가장 좋은 계절 등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관 자매가 배운 교훈은 단지 식물 재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하루는 밤에 정원을 다 휩쓸어버릴 듯 한 엄청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물은 해를 입기는커녕 늘어난 물로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자라 있었다고, 관 자매는 놀라워했다.

관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 경험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으로 용기를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받았답니다. ■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원을 돌보지 않은 적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심지어 오피스텔에 사는 지금도 여전히 매년 식물을 심고 수확을 하고 있죠. …… 매해 봄마다 저는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로 작은 씨앗을 살려본 후 잘 준비된 모판에 심어 놓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수확을 낼지 생각하면서 감탄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톨 페리 장로, “The Law of the Harvest,” *New Era*, 1980년 10월호, 4쪽

몬슨 회장, 로마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0년 10월 23일, 이탈리아 로마 성전 기공식에서 첫 삽을 떴다. 2년 전에 건축 계획을 발표한 이 성전은 3천7백 제곱미터에 3층 건물이고, 유럽에서는 열두



2010년 10월 23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이탈리아 로마 성전 기공식에서 첫 삽을 떴다.

번째이며 이탈리아에서는 첫 번째로 지어지는 성전이다. 완공이 되면 이탈리아와 이웃 나라 회원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는 다기능 집회소와 방문자 센터, 가족 역사 센터와 참여자 숙소가 포함된 종교 및 문화 시설이 세워질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2010년 10월 30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성전 기공식에서 첫 삽을 떴다. 부지는 아르헨티나 교회 초기에 세워진 예배당이 있던 자리로 정해졌다.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부지의 마지막 목적이 주님의 집을 품는 것이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에 세워지는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성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해 있다.

애리조나 길버트에서 열린 기공식

칠십인 회장단의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2010년 11월 13일,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 기공식에서 첫 삽을 떴다. 2008년 4월 26일에 발표된 애리조나 힐러 밸리 성전과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교회 회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건축 계획을 발표한 성전이다.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은 애리조나에 세워지는 네 번째 성전이 되며, 다섯 번째인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은 아직 계획 중이다. ■

애독자 편지

포스터가 마음에 들어요

*리아호나*는 언제나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죠. *리아호나*와 공감할수록 그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포스터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베르사 비올라 레티즈 에스피노, 멕시코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다

저희 가나 아부아과 지부 회원들은 최근에 지부 설립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처음엔 성찬 모임에 50명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128명이 함께합니다. 저희는 *리아호나*를 읽고 공부하며, 개종자와 그 밖에 *리아호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리아호나*를 더 많이 구매합니다. 회원 수는 매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경이 참됨을 압니다.

크리스토퍼 피들, 가나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서 닻과 같이

집에 *리아호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리아호나*는 힘의 근원입니다. 제 마음이 정결치 못한 생각에 휩싸인 어느 날, 저는 *리아호나*에 몰입하여 그 생각을 떨쳐 냈습니다. *리아호나*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고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전을 위해 내리는 닻처럼 저를 잡아 주었습니다.

빅토리노 에프 델라 크루즈 2세, 필리핀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홍수로 흠어졌으나, 기도로 하나된 가족”,

14쪽: 기사를 읽고 나서 엘마서 34장 18~27절을 다 함께 읽으며 기도 원리를 강조할 수 있다. 기도와고 응답 받은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치유하는 이의 손길”, 18쪽: 기사를 읽고 토론한 후 가족들에게 “Lord, I Would Follow Thee”(영문 찬송가, 220쪽)를 부르도록 권유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방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삶에서 속죄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상한 마음과 오해와 증오를 치유”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32쪽: 줄리 비 벅 자매의 메시지를 나누며 가족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을 토론하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한다. 가족을 위협하는 요소를 알아보고 신앙으로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되어 가정을 꾸릴 때 걱정하거나 망설일 수도 있을 일들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축복을 세어 보세요”, 62쪽: 가족이 이 기사를 읽기에 앞서 축복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들을 방에 늘어놓는다. 옷, 음식, 경전, 구주에 대한 미술 작품, 가족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에게 이 “축복”을 보라고 하고 그것이 왜 감사한지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에게 고마운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게 하여 종종 그 목록을 보도록 제안할 수 있다.

집을 떠나 있을 때의 가정의 밤

나의 세 자녀는 현재 집을 떠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가정의 밤을 함께 나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에서 얻는 영적 경험과 *리아호나*와 경전, 특히 물론경에서 얻는 교훈을 이메일로 보낸다. 이메일 쓰는 것을 잊고 한 주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엄마! 가정의 밤을 놓쳤잖아요!” 아이들이 비록 몸은 이곳에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정의 밤을 하면서 우리는 가족을 강화한다.

가정의 밤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영감 받은 프로그램임을 믿는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즉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노르마 레티사 트레비노 데 테일러, 누에보 레온, 멕시코

왜 지침서인가?

최 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새 지침서 두 권을 소개하고 해당 정책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왜 지침서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들려 주었다.

교회 지침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들을 얻을 수 있다. (1) 가파른 성장세에도 절차상 통일성을 유지하고 (2) 제일회장단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3) 현지 지역을 관리하는 일에 계시가 따르도록 촉진한다.

통일성과 성장

지침서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에 통일된 정책과 절차,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한다.

2010년 11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회원 수는 날로 증가해 왔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수 천 개의 단위 조직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서가 없다면 교회는 통일된 정책과 절차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짐을 덜다

지침서는 제일회장단이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데



지침서를 숙지하고 따르는 교회 지도자는 성신의 인도로 영감을 받는다.

사용하는 시간 부담을 줄여 준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제일회장단이 매주 함께 모여 정교 모임을 할 때면, 필요에 따라 오류를 다루고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오류 중 대부분은 지도자들이 지침서를 숙지하고 지침서에 설명된 정책과 절차를 따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때때로 교회 정책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교회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결정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했다.

“여러분이 오래된 교회 회원이든 비교적 새로운 회원이든 간에, 정책이나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지침서 안에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하고 몬슨 회장은 덧붙였다.

계시를 촉진하다

지침서는 현지의 지도자들이 교회

업무를 관장할 때 영의 인도를 구하여 계시를 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2010년 11월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알고 확립된 절차를 따를 때, 성신은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데이비드 엠 맥쿱키 형제도 201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지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맥쿱키 형제는 지역 칠십인으로부터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로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모든 답은 지침서에 나와 있던 것이었다.

맥쿱키 형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감히 더는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서를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되풀이하시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11월호, 13쪽)

40개국 언어로 제공되는, 2010년 11월과 2011년 2월에 열린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비디오와 본문, 오디오를 찾아보려면 LDS.org 에서 **Serving in the Church** 난을 방문한다. ■

와드 가족 안에서 안전을 느꼈다

캐롤라인 킹슬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 시절 기억 중의 하나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동안 단단한 나무로 된 부엌 바닥에 어머니의 구두발이 닿으면서 나는 또각또각 하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우리 와드에서 많은 일을 맡아 하셨으며, 수년간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다. 그런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열두 살 되던 무렵, 어머니와 내가 단 둘이 생활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다. 내가 따르고 싶었던 분인 어머니가 다른 길을 선택하셨지만 나는 이 복음이 참됨을 알기에 계속 교회에 다녔다. 어머니는 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일요일마다 차로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셨고, 또 데리러 오셨다.

이따금 교회에 참석하는 일은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 특히 성찬식에서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다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앉은 아이들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올 때에는 더욱 그랬다. 나는 친구의 가족과 같이 앉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언제나 우리 와드의 “몰몬 가족”과 그밖에 다른 분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들은 그 힘든 시기에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

예를 들어 가정 복음 교사들은 내가 와드 회원들 대부분과는 달리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위해 늘 충실하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오셨다. 나는 우리 집에서 복음에 대해 토론하고 신권의 힘과 영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항상 고대했다.

와드 회원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생 알아온



열두 살에
혼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안전한
그물로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들이었다. 친숙한 얼굴들, 환하게 웃으며 반겨 주고 정답게 대화를 나눠 주신 그분들은 나의 와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되어 주셨다. 사랑과 소속감은 가족 없이 홀로 교회에 다니는 아픔을 씻어 주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안다. 많은 청소년이 한쪽이나 양쪽 부모 없이 교회에 다닌다. 하지만 모범과 우정, 부름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돕고, 복음 원리를 가르치며, 여러 모임과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들을 북돋울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성하며 가장 강력한 조직인 가족 안에서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전에 본부 청년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신 버지니아 에이치 퍼스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 일정 부분은 가정 안에서 배웁니다. 이 가족이라는 조직에 더하여 주님은 와드나 지부 가족도 마련하셨습니다. …… 가족 단위를 대신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그 의로운 가르침을 돕도록 와드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가르침과 성장 경험을 우리 가족들이 제공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각자를 위해 ‘안전한 그물’이 되어 줄 가족을 이루는 데 충분한 에너지와 헌신이 있는 와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와드 가족의 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그와 같은 성도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안전한 그물이 되어 주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이 베풀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 준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주

1. Virginia H. Pearce, “The Rewards of a Ward,” *New Era*, 1995년 3월호, 41쪽.